

2022

한국통역번역학회 가을 학술대회

‘통번역과 이데올로기’

주최 : 한국통역번역학회

일시 : 2022년 9월24일(토요일) 13:00~18:00

장소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워커힐홀

2022

한국통역번역학회 가을학술대회

주최 : 한국통역번역학회

후원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일시 : 2022년 9월 24일(토) 13:00~18:00

장소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워커힐홀

개회사 13:00~13:10	성승은 학회장 (한국통역번역학회)	
13:10~14:30	세션 1	좌장: 이승재 (경희대)
기조 특강	국내 언론의 국제뉴스 보도 및 번역 관행 :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하정민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질의 응답		
발표	통역연구의 과제	이 향 (한국외대)
토론		신나정 (한국외대)
14:30~14:45	휴식	
14:45~16:15	세션 2	좌장: 김순영 (동국대)
발표	번역학에서 도구주의(instrumentalism)란 무엇인가?	이영훈 (고려대)
토론		김도훈 (부산외대)
발표	사설 번역에서 미디어 이데올로기 강화	마승혜, 김순영 (동국대)
토론		이현경 (한국외대)
발표	인간과 기계번역의 공존을 위한 담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김동미,곽은주 (우송대,세종대)
토론		진실로 (세종대)
16:15~16:30	휴식	
16:30~18:00	세션 3	좌장: 이해승 (수원대)
발표	한영번역 수업 개선을 위한 시도로서 팀티칭 사례 모색	최경희 (평택대)
토론		김아영 (부산외대)
발표	러시아 노래 번역 연구: 군가를 중심으로	유정화 (육사)
토론		강동희 (한국외대)
발표	김혜순 시의 외형적, 형태적 요소의 번역: "한 잔의 붉은 거울"을 기반으로	이상빈 (한국외대)
토론		박지영 (한국외대)
연구 윤리교육 및 폐회사		

국내 언론의 국제뉴스 보도 및 번역 관행: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심으로

하정민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1. 우크라이나 사태 보도의 특징

- 국내 언론이 현지에 가장 많은 기자를 파견한 사건. 국내 언론의 국제뉴스 보도 관행의 단골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외신 배끼기 및 필경사' 논란 상당부분 해소.
- 2001년 입사 후 21년간의 기자 생활 중 절반 이상을 국제부 기자로 재직하며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세계 금융위기, 시리아 내전 및 이슬람국가(IS) 창궐, 미얀마 내전 등을 경험했지만 거의 모든 한국 언론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이렇게 많은 기자를 파견한 적은 처음. 대부분 현지 주민 및 피난민 인터뷰 등 르포성 기사가 대부분이었으나 이 정도의 인적 공세는 처음이라는 점에 의의.
- 동아일보는 파리 특파원이 세 차례 우크라이나 현지를 다녀왔고 이와 별도로 폴란드 수차례, 리투아니아 1차례도 다녀오는 등 현지 취재에 공을 들였음. 다른 매체 역시 비슷. 방송사들은 한 기자를 2주간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지대에 배치한 후 2주 후 다른 기자로 바꿔주는 식으로 일종의 단기 순환 특파원 체제로 운영.
-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 때는 안전 우려, 접근의 어려움 등 제약 조건도 많았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년 전보다 한국 언론에서 차지하는 국제뉴스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 소위 말하는 '정경사보다 처지는 부서다, 특파원 가기 위해 경력관리용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아직 일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언론사 조직원 전반의 시각이 상당히 달라짐. 특히 수뇌부의 변화가 눈에 띌. 특파원 경험 없이 정치, 법조 등 만 담당했던 국장 등도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1면으로 선택.
- 그간 국제부의 가장 큰 대목은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미국 대선이었지만 수차례 경험한 미국 대선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할애한 아이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2월 24일 이후 7개월 간 매일 종합면 1,2개면+국제면 1개면+투데이(젤렌스키 동정 등)+경제섹션(국제 유가 동향 등)에 사태의 파장을 전달하고 있음. 침공 당일과 그 며칠 후, 부차 민간인 집단학살 등의 사건이 있었을 때는 신문 1~4면이 모두 우크라이나 속보였을 때도 있었음.
- 수십 명의 기자를 현지에 파견하는 서구 언론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상당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음. NYT의 연 매출은 약 12억 달러(1조 6800억 원) VS 국내 주요 언론 2,300억 원 대인 현실적 차이도 무시 못 함. 오히려 인력 풀은 한국이 더 엘리트.

2. 국제 뉴스의 번역 관행

- 신문은 분량의 제한이 상당히 큰 플랫폼. 게이트키팅을 포함해 writer와 editor의 취사선택, 선택과 집중의 여지가 큼. 이런 맥락에서 인용 매체는 NYT, CNN, BBC 등 서구 언론 중에서도 가장 인지도 있는 대표 매체를 주로 선택. 같은 아이템을 각국의 수많은 언론에서 비슷하게 다루므로 결국 언론사의 네임밸류가 중요. 그 밸류의 핵심은 신뢰도.

-다만 최근 미국 국내 뉴스, 특히 중간선거 같은 정치 관련 뉴스는 액시오스, 더힐 등의 인용 비중이 급증. 신생 매체라도 보도 내용이 좋고 신뢰도가 있으면 국내 언론 또한 적극 받아들임.

-국내 언론은 두괄식 보도가 주류. 기사의 주제 A가 리드에 나오고 a, a'가 나오는 전형적인 역피라미드 형태. B,C 같은 다른 주제는 거의 없음. 이를 타파하기 위한 내러티브형 글쓰기 바람이 불고 있으나 editor 이전에 1차 독자인 입장에서 어설픈 내러티브는 잘 쓴 600자짜리 스트 기사보다 훨씬 못함. 기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2000자 중 1400자쯤에 나오는데 그 앞의 1399자가 일목요연하지 않고 재미도 없으면 독자의 시간을 뺏는 행위.

-FT, BBC 같은 영국 언론과 달리 NYT와 WSJ는 1만 자가 넘는 A4 용지 5장짜리 기사가 상당수. 그러다보니 A, B, C라는 세 가지 주제가 다 나옴. 결국 이 셋 중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야마를 택하느냐의 문제가 남음.

-이 때 한국과의 연관성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각종 난맥상을 폭로하는 수많은 기사가 나왔지만 한국 언론에서 쓸 때는 늘 북핵 협상 뒷얘기나 주한 미군 분담금 논란 등을 앞세움. 러시아 게이트 등보다 한국 독자에게 훨씬 의미있고 중요하고 실생활과 깊이 연관된 기사이기 때문.

3. 한국 언론은 서구 유명 매체의 확성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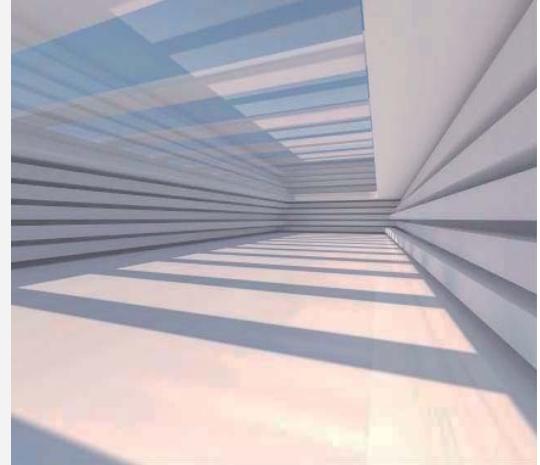
-한국 언론의 국제 뉴스 보도를 비판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이 '서구 언론을 마구잡이로 베끼다보니 미국 편향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임. 미국 거대 언론의 보도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언론이 100% 주체적으로 국제 뉴스를 보도한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미국 언론의 시각이 틀렸다고도 보기 어려움.

-중국,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패권국은 물론 터키 사우디라아라비아 이란 형가리 미얀마 베네수엘라 등 독재자 혹은 권위주의 지도자가 집권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서구 언론의 보도가 없었다면 그 실태가 과연 얼마나 알려졌을지 의문.

-차이나데일리 같은 중국 관영 영자지의 신장위구르 관련 보도가 대표적 예. '이게 다 미국의 음모, 조작, 가짜뉴스'라는 말 빼고는 내용이 없음. 코로나19도 미군이 중국에 퍼트렸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과 시각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권위주의 국가의 언론통제에 동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 전자의 개선점이 일부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후자의 위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 현지 취재가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서구 언론의 의존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면이 있음. '무조건 미국 최고'가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각종 인권탄압, 불투명한 정보 공개가 2022년 9월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

통역학의 과제

KSCI (2022.9.24)



이 향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학과)

목 차

- 1 The Name
- 2 The Nature
- 3 Task of Interpreting Studies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Holmes, Copenhagen, 21-26 August, 1972,
Third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Linguistics)

“학문은 미지의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진보한다. 새로운 영역이 발견될 때마다, 인접학문에서 종사하는 학자들이 그들의 모델과 패러다임으로 이를 설명하려 애쓰게 된다. 설명에 성공하면 신 분야는 기존학문에 편입되며, 실패하면 새로운 방법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를 탐구하는 학자들과, 기존학문 영역의 학자들 간에 갈등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번역 및 번역하기 현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언어학자들은 인정하기 싫어할지 모르나, 내가 보기에는 언어학은 번역을 설명하는데 실패했다. 인접학문(문학, 언어학, 언어철학, 논리학, 수학 등)에서 번역을 설명하려 시도하였으나, 지금의 상황은 한마디로 혼돈이다.

그러나 조금씩 번역학이 학문적으로 성숙해가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번역에 대한 연구가 봉착해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학문적 성숙을 도와야 한다.”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Holmes, Copenhagen, 21-26 August, 1972,
Third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Linguistics)

“학문은 미지의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진보한다. 새로운 영역이 발견될 때마다, 인접학문에서 종사하는 학자들이 그들의 모델과 패러다임으로 이를 설명하려 애쓰게 된다. 설명에 성공하면 신 분야는 기존학문에 편입되며, 실패하면 새로운 방법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를 탐구하는 학자들과, 기존학문 영역의 학자들 간에 갈등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통역 및 통역하기 현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번역학자들은 인정하기 싫어할지 모르나, 내가 보기에는 번역학은 통역을 설명하는데 실패했다. 인접학문(신경언어학, 사회학, 언어학 등)에서 통역을 설명하려 시도하였으나, 지금의 상황은 한마디로 혼돈이다.

그러나 조금씩 통역학이 학문적으로 성숙해가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역에 대한 연구가 봉착해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학문적 성숙을 도와야 한다.”

The Name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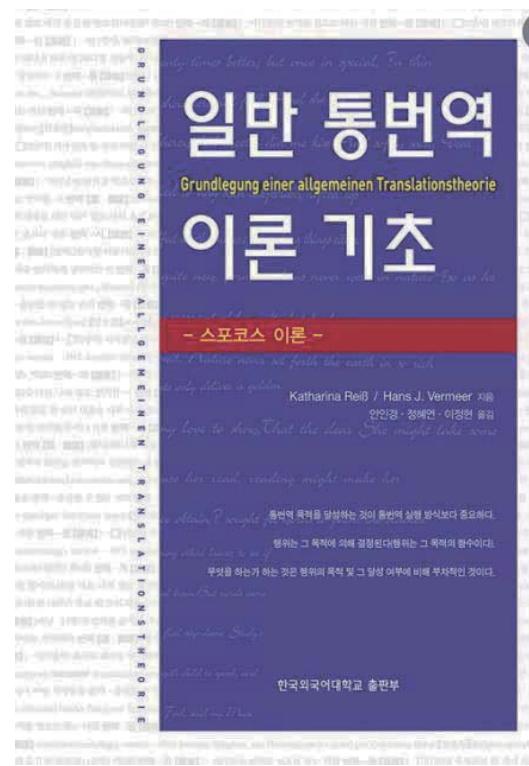
(Holmes, Copenhagen, 21-26 August, 1972,
Third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Linguistics)

Art ?
Craft ?
principles ?

Translatology ?
Translatistics ?
Translistics ?
Theory of translating ?

“Translation studies 가 가장 적합하다. Studies 는 대학의 학제구분
상 science가 아닌 인문 및 예술 분야의 학문을 칭하므로... ”

The Name



Sprachwissenschaft,

Literaturwissenschaft

Übersetzungswissensch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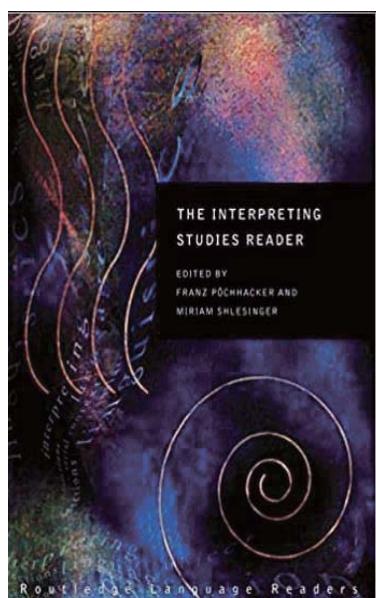
Translationstheorie

“이 책에서는 ‘통역(Dolmetschen)’과 ‘번역(Ubersetzen)’의
상위개념으로 라이프치히 학파의
통번역(Transl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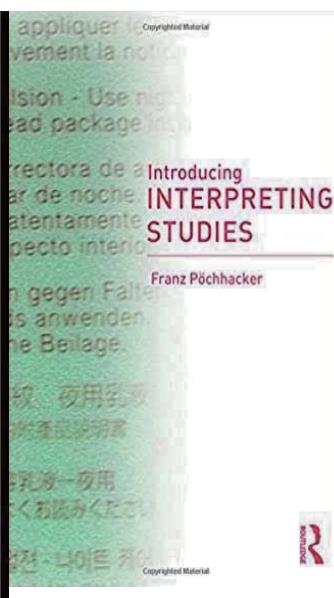
(Kade 1968: 33)”

『일반통번역이론 기초』, Reiß & Vermeer 1984/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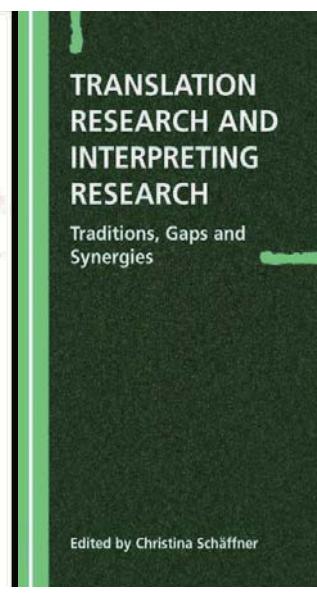
The N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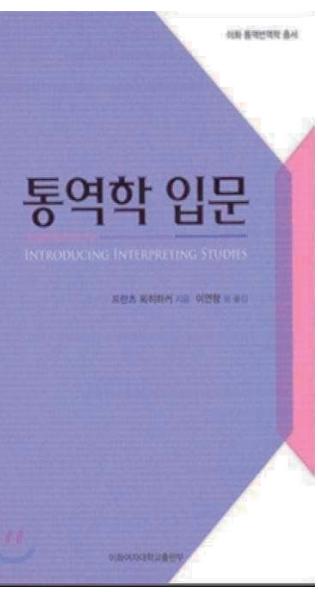
2004



2004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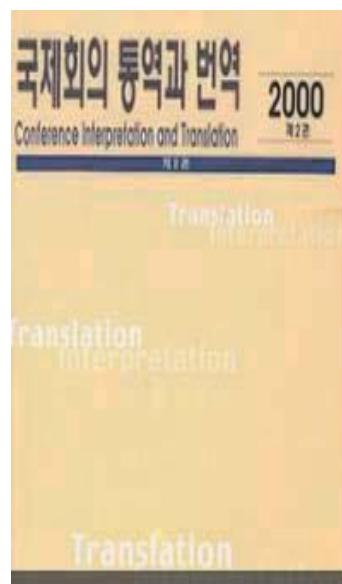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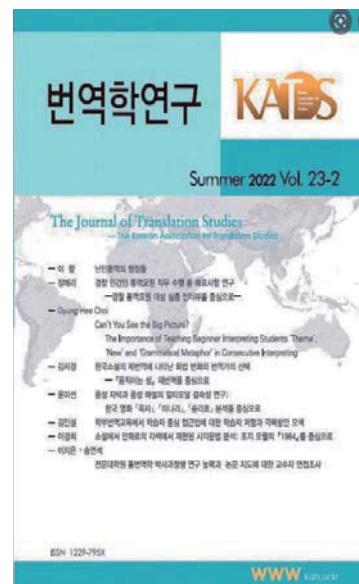
The Name



1997-



1998-



Summer 2022 Vol. 23-2

Summer 2022 Vol. 23-2

학술연구분야 분류표 (2022)

A	인문학	언어학	발달사	History of Language Development
A	인문학	언어학	코퍼스	Corpus
A	인문학	언어학	번역	Translation
A	인문학	언어학	역사/비교언어학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A	인문학	언어학	사회언어학	Sociolinguistics
A	인문학	언어학	인지언어학	Cognitive Linguistics
A	인문학	언어학	응용언어학	Applied Linguistics
A	인문학	언어학	전산언어학	Computational Linguistics
A	인문학	언어학	심리언어학	Psycholinguistics
A	인문학	언어학	대조언어	Contrastive Linguistic
A	인문학	언어학	언어교수법	Second Language Pedagogy
A	인문학	언어학	언어교육	Language Teaching
A	인문학	언어학	언어인식	Language Recognition

A	인문학	문학	문학	Literary criticism
A	인문학	문학	희곡	Drama
A	인문학	문학	구비문학	Oral Literature
A	인문학	문학	아동문학	Children's Literature
A	인문학	문학	역사문학	Literature and Visual Media Art
A	인문학	문학	번역문학	Literature translation
A	인문학	문학	기타문학	Other Literature
A	인문학	한국어·외문학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	인문학	한국어·외문학	국어학	Korean Language Studies
A	인문학	한국어·외문학	국어학	Phonetics(Korean)
A	인문학	한국어·외문학	국어학	Phonology(Korean)
A	인문학	한국어·외문학	국어학	언어학(Korean)

학술연구분야 분류표 (2022)

A	인구학	정글자인구학	정글자	비교인구학(정글자)	Comparative English Literature
A	인문학	영어와문학	영문학	기타영문학	Other English Literature
A	인문학	영어와문학	영어교육		English Language Teaching
A	인문학	영어와문학	영어통역번역학		English-Korea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A	인문학	프랑스어와문학	프랑스어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A	인문학	프랑스어와문학	프랑스어		French Linguistics
A	인문학	프랑스어와문학	프랑스어	음성학/음운론(프랑스어학)	Phonetics/phonology(French)
A	인문학	프랑스어와문학	프랑스어학	형태론(프랑스어학)	Morphology(French)
A	인문학	프랑스어와문학	프랑스어학	통사론(프랑스어학)	Syntax(French)
A	인문학	프랑스어와문학	프랑스어학	의미론(프랑스어학)	Semantics(French)
A	인문학	프랑스어와문학	프랑스어학	회용론(프랑스어학)	Pragmatics(French)

A	인문학	기타서양언론학	유고슬라비언학		Yugoslavian Language and Literature
A	인문학	기타서양언론학	헝가리언문학		Hungarian Language and Literature
A	인문학	기타서양언론학	기타서양언론학		Other Western Languages and Literature
A	인문학	통역번역학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A	인문학	통역번역학	통역번역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	인문학	통역번역학	통역		Interpretation
A	인문학	통역번역학	번역		Translation
A	인문학	기타인문학			Other Humanities
B	사회과학				Social Science
B	사회과학	사회과학일반			Social Science in general
R	사회과학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일반		Social Science Education

The Name

IS (Interpreting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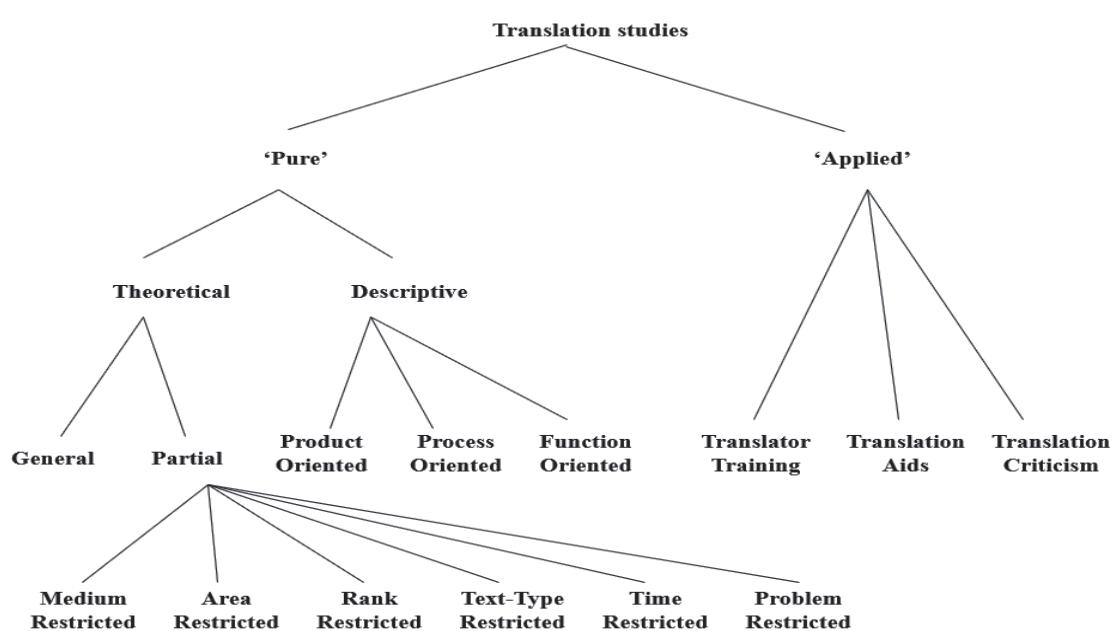
T&I

TIS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IT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The Nature

Holmes/Toury Map
of Translation Studies (1972/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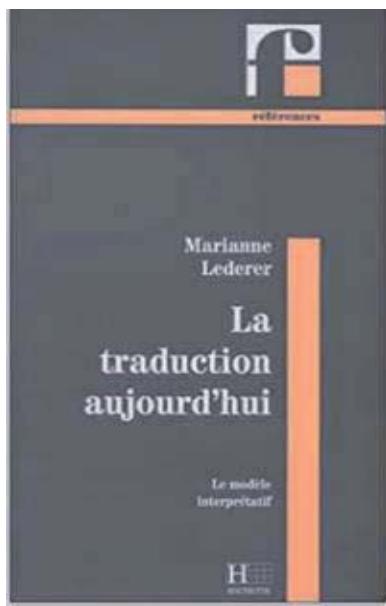
Interpreting is a form of translation ?

Paris School

“ Neither Chernov nor his colleagues at Leipzig had as much impact on the field of Interpreting Studies as their Paris-based contemporary Danica Seleskovitch and her associates.

Pöochhacker, Interpreting Studies, in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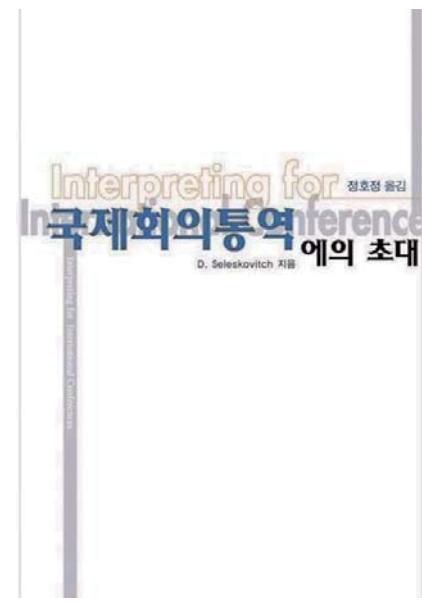
PARIS SCHOOL



1994



2001



2000

The Past and fu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South Korea (Lee & Nam, 2018)

Table 1. T&I training institutions in South Korea.

Name	City	Establishment	Language pairs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1979	Korean- English, French, German, Spanish, Russian, Japanese, Chinese, Arabic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Daegu	1994	Korean- English, Chinese, Japanes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 Interpre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997	Korean- English, French, Chinese, Japanese
Graduate School of Humanities and Information, Korea University	Seoul	1998	Korean- English
Graduate School, Sejong University	Seoul	2000	Korean-English (Dep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Korean- English
Handong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Handong Global University	Pohang	2000	Korean- English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 TESOL,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2000	Korean- 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2000	Korean- English, Chinese, Japanese, German
Glocal Graduate School of Human Resource & Development, Sun Moon University	Asan	2001	Korean- English, Chinese, Japanes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 Information Security, Dongguk University	Seoul	2002	Korean- English
Seoul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2003	Korean- English, Chinese, Japanese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san	2003	Korean- English, Chinese, Japanes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ung- Ang University	Seoul	2005	Korean- English, Chinese, Russian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Seoul	2007	Korean-English (Dep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won	2007	Korean-English (Dep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2006	Korean-English (Dep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2013	Korean- English (Dept. of English Trans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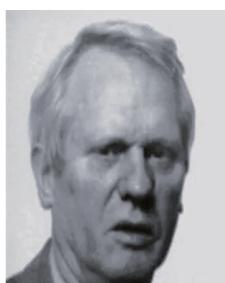
The Past and fu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South Korea (Lee & Nam, 2018)

Table 3. TS doctoral programs in South Korea.

	Establishment	Language pairs
Graduate School, Sejong University	2000 (March)	Korean-English (Dep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0 (September)	Korean- English, French, German, Spanish, Russian, Japanese, Chines, Arabic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 Interpre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5	Korean- English, French, Chinese, Japanese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2007	Korean-English (Division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07	Korean-English (Dep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6	Korean-English (Dep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2010	Korean- English, Chinese, Japanese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3	Korean- English (Department of English Translation)

"Is Translation Studies too literary?" (José Lambert, 2005)

worked at KU Leuven as Professor in Literary Studies (Romance Philology), and gradually also in Translation Studies, from 1972 to 2006. Since his retirement, he remains active in research and teaching at CETRA, the KU Leuven Centre for Translation Studies, which he founded in 1989. Since 2011, he works as Professor in Brazil (at PGET at UFSC, Universidade Federal Santa Catarina, at Florianópolis: 2011-2015; and now at POET, UFC, Universidade Federal do Ceará: 2015).



Both in Comparative Literature and in Translation Studies, Professor Lambert played an international role while linking research and research programme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1976, he made one of the decisive steps in the establishment of a new discipline, Translation Studies, while planning the historical conference "Literature and Translation: New Perspectives in Literary Studies," where experienced scholars (James S Holmes, Itamar Even-Zohar) and young talents (Gideon Toury, André Lefèvere, Susan Bassnett; also Theo Hermans, Lieven D'huist) started their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networking around translation which was going to generate new journals, book series, academic curricula, etc.

"Yes, indeed, research on translation is often carried out in a "**much too literary way**, i.e. while making use of many implicitly literary views on language, texts, etc...." (p. 10)

Challenges

0 4

Deprofession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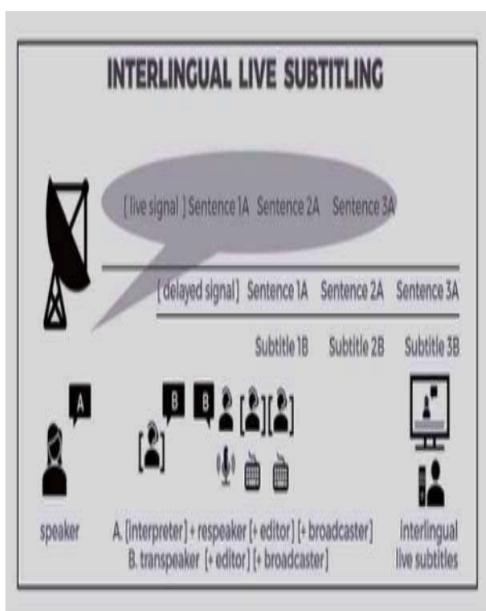


"New Societies, New Values, New dem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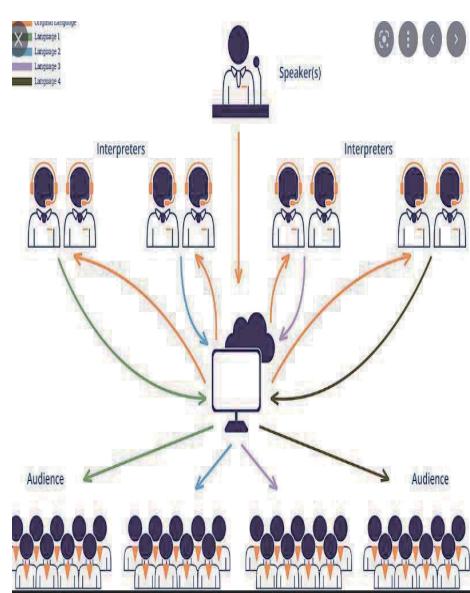
"... most of the world's interpreting is done by quasi or non-professional interpreters"

(R.B.W. Anderson 1978: 227)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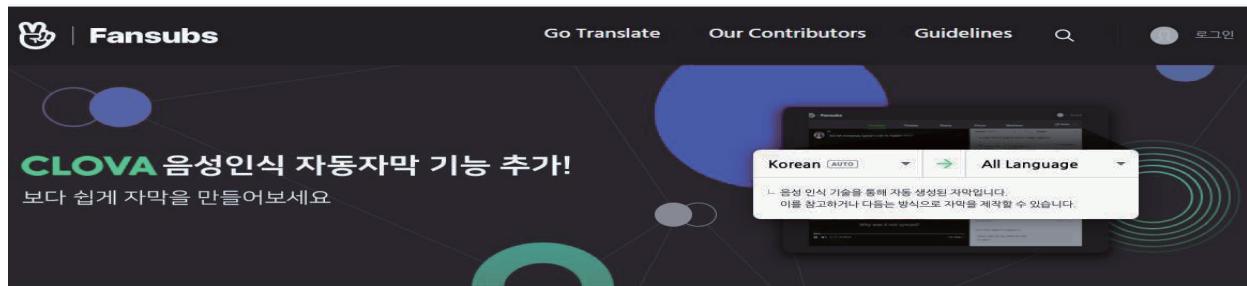


Live subtitling



Remote Simultaneous Interpreting

Demonet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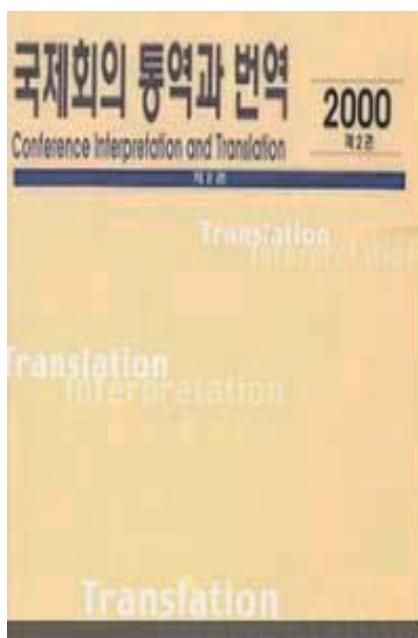


A screenshot of a Korean website featuring a '언어별 베스트 멤버 - Bengali' (Best members by language - Bengali) section. It shows two profiles: 'Tasnim Tabassum' with 142 lines and 'JebaRaisa Bangl...' with 48 lines. Below this is a section titled '번역 추천 작품' (Recommended translation works) displaying four thumbnail images of video clips with subtitles in various languages (RUS, PER, BEN, KOR) and their respective timestam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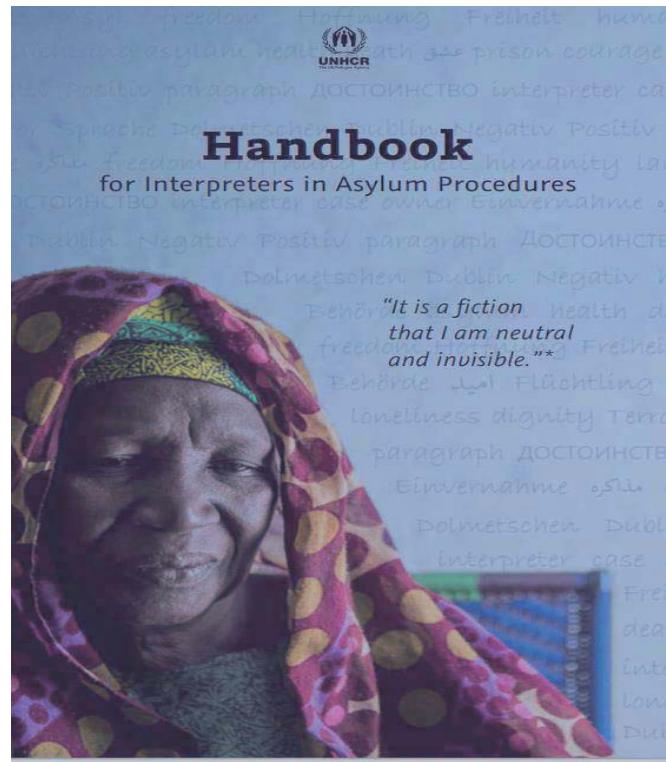
V Fansubs → V Live → 네이버 사전/파파고

Conference
Interpreting

Community
Interpreting



Eth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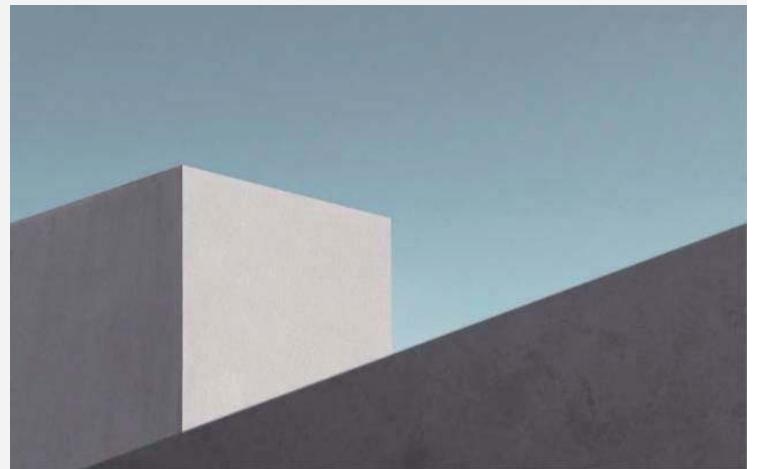


Practisearcher Bias

Challenges

- ★ 통역학은 다양한 통역의 양상을 묶어 둘 강력한 우산이 될 수 있는가?
- ★ 공동체 안에서 통역연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2022 한국통역번역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
“통번역과 이데올로기”

번역학에서 도구주의 (instrumentalism)란 무엇인가?

이영훈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목차

1. 연구 배경
2.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3. 도구주의란 무엇인가?
4. 번역학에서 도구주의란?
5. 향후 연구방향

연구 배경

- ‘문화적 전환’ 이후 번역학계 내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심
- 번역 이론의 이데올로기적 속성 탐구
- 서구 번역학계 내 ‘도구주의’를 둘러싼 논란 cf. Lawrence Venuti, *Contra Instrumentalism: A Translation Polemic*,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9.

3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이데올로기의 기원과 정의

The term was coined by Destutt de Tracy (1755–1836), a French Enlightenment philosopher. The term originally meant the study of ideas as opposed to metaphysics, the study of the fundamentals of reality. Later the term took on a pejorative connotation and became to mean mostly false or mistaken ideas in socio-political contexts, although the term can also mean the system of ideas in a neutral sense. In the negative sense, ideology means such ideas that distort reality, whereas when the term is used neutrally, it means what de Tracy intended it for – transformation of the experience of reality into the realm of ideas. (Sergey Tyulenev, *Translation and Society: An introduction*, Routledge, 2014, 140-141.)

5

이데올로기의 두 계통

Indeed, there is no grand global theory as such in respect of ideology. The problematic nature of ideology as a general concept is evidenced in Eagleton's 16-point list of definitions (Eagleton 1991:1–2), which includes several overlapping and mutually incompatible themes. From this list Eagleton filters out two lineages in mainstream intellectual thinking: first, the Hegelian-Marxist conception of ideology “as illusion, distortion and mystification” (*ibid.*:3), [...]; and second, the school of thought that is less interested in epistemology, focusing instead on “the function of ideas within social life”, [...]. Both lineages have impacted fields concerned with the study of culture, including translation studies. (Tong King Lee, “Ideology”, in Mona Baker & Gabriela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3rd edition, Routledge, 2020, 252-256, 252.)

6

이데올로기와 번역학

Two specific themes have come to the fore. The first theme dovetails with the Hegelian-Marxist conception of ideology, entailing “false ideas which help to legitimate a dominant political power” and “systematically distorted communication” (Eagleton 1991:1). [...] The second theme corresponds with the sociological dimension, manifested as “a body of ideas characteristic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class” (Eagleton 1991:1). [...].

In translation studies, most interpretations of the term tend toward the second theme, with an emphasis on normativity. [...] The prevailing approach is thus to treat ideology as an umbrella concept that subsumes the political (narrowly defined) within its purview but also exceeds it. (*ibid.*, 252-253)

7

번역학에서 이데올로기란?

- Ideology of Translation
- Translation of Ideology
- Ideology of the Translation Studies

8

번역학의 이데올로기

Therefore, behind any scientific ‘paradigm shift’ exists an ideological driving force conditioned by its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 Theories and ideas are thus inevitably subject to different ideological interpretations of reality.

In this light, simplistic views of translation as they have prevailed (and partly still do prevail) throughout the centuries can indeed be regarded as long-standing ideologies. Translation used to be seen as a derivative and thus negligible activity. Added to this, translations have mainly been discussed in view of their perceived equivalence to an original text,... (Stefan Baumgarten, “Ideology and translation”, in Yves Gambier & Luc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ume 3, John Benjamins, 2012, 59-65, 62.)

도구주의란 무엇인가?

Instrumentalism in *OED*

1. *Music.* Instrumental technique; instrumentation.
 2. a. *Philosophy.* The pragmatic theory, developed by John Dewey (1859–1952), which holds that thought, inquiry, and knowledge are primarily instruments for adjusting to the environment. Also: Dewey's philosophy as a whole. Now chiefly *historical*.
- 1904 J. Dewey in *Psychol. Bull.* 1 339 A feature which used to be called Voluntarism, which is now termed Pragmatism, and which personally I should..prefer to call Instrumentalism, is characteristic of Mr. Schiller's thought.
- b. Chiefly *Philosophy.* Any of various views which regard an activity, method, theory, or discipline chiefly or exclusively as an instrument or tool for some practical purpose; spec. the view that scientific theories or hypotheses are not descriptions of the world which are true or false but (merely) tools for predicting observable phenomena or events.

11

듀이에게 instrumentalism이란?

The thesis of the essays is that thinking is instrumental to a control of the environment, a control effected through acts which would not be undertaken without the prior resolution of a complex situation into assured elements and an accompanying projection of possibilities— without, that is to say, thinking.

Such an instrumentalism seems to analytic realism but a variant of idealism. (John Dewey, *Essays in Experimental Logic*, Dover Publications, 1916, 30)

12

이데올로기로서의 도구주의

Instrumentalism as an ideology is not of course new; in fact, it has been a central ideological foundation of capitalist modernity (cf. Heyman 2000; Pluciennik 2001a) and a reasoning that has been the focus of powerful critiques from Max Weber (cf. Turner 1992) to Francois Lyotard (1984), as shown in the quotation above. On many occasions in the distant or more recent past, knowledge was seen as the ‘tool’ to achieve specific aims, be it the socialization of individuals into aristocratic and upper-class manners and life-ways or the formation of a national pedagogy and of an ideal national citizen, among others. (Yannis Hamilakis, “Archaeology and the politics of pedagogy”, *World Archaeology*, 36(2), 2004, 287–309, 290)

13

철학에서 도구주의 이성 비판

Horkheimer and Adorno developed a critique of modernity as culture and a form of rationality compatible with it (PDM, 112). Their position defined rationality in terms of instrumental reason, which was driven by self-preservation and the reification (dehumanization) of nature. Instrumental reason, particularly for Horkheimer, grew out of Enlightenment disenchantment and the technological desire for mastery over nature, accelerated by rapid expansion of capitalist societies (Horkheimer 2004, 105). (Melissa Yates, “Instrumental Reason”, in Amy Allen and Eduardo Mendieta, *The Cambridge Habermas Lexic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197-199, 198)

14

번역학에서 도구주의란?

도구주의적 언어이론

In the Western world, theories about language depend on two complementary ways of knowing, characteristic of different ways cultures have of approaching reality.¹ The first, represented by linguistics, systematizes observable speech phenomena to arrive at analysis of the means of expression. It is strongly empirical, and at least three times in the last 2,000 years has attempted to take on the trappings of an exact science: [...]. Linguistics assumes that language is an instrument, and that its essence can be described by relating observed behaviour to scientific models. (Louis G. Kelly, *The True Interpreter: A History of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in the West*, St. Martin's Press, 1979, 7)

도구주의적 번역모델

Where **linguistics concentrates on the means of expression**, the complementary hermeneutic approach analyses the goal of linguistic interactions. The focus here is anti-empiricist: the central reality is not the observable expression, but the understanding of the cognitive and affective levels of language through which communication takes place. (*Ibid.*, 7)

To each stream of language theory, there corresponds a theory of translation. **Linguists' models assume that translation is essentially transmission of data**, while hermeneutic theorists take it to be an interpretative recreation of text. It is hardly surprising then, that each group, sure that it has the whole truth, lives in isolation from the other.¹ (*Ibid.*, 34)

17

번역학에서 도구주의적 사유1

Translation Studies is another field in which the social praxis related to translation seems to impose its 'reality' directly on research design. **Practice-orientation has become a guiding principle and a major legitimating ground for research and teaching in Translation Studies** (in Europe). As mentioned before, the Bologna process has placed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such as *competitiveness* and *employability* at the centre of the 'reform' of academic curricula in the EU. Thus, The "**business model of knowledge production**" (Schwandt 2007, 4) is oriented towards usefulness of knowledge, and only that which can be communicated well and 'transferred' to or 'applied' in the professional world is defined as useful knowledge. (Dilek Dizdar, "Instrumental thinking in Translation Studies", *Target* 26(2), 2014, 206-223, 209-210)

18

번역학에서 도구주의적 사유2

"On the other hand, the massive growth of easy technological translation tools such as Google Translate reduces translation to a by-product of equivalent languages. According to that view, translators are at best part of the tool, “passive agents, with no voice, no empathy, no subjectivity, no reflexivity, no interpreting skill, no intercultural awareness” (Gambier 2016: 889) and, in the near future, easily replaceable. This reductionist view of translation as a tool is an instrumentalisation of translation, and is increasingly dominant. Given its omnipresence in daily life, we might expect it to determine the mainstream view of translation. (Luc van Doorslaer, "Bound to expand: The paradigm of change in translation studies", in Helle V. Dam et al. (eds.), *Moving boundaries in translation studies*, Routledge, 2018, 220-230, 224)

19

베누티의 도구주의적 언어관 비판

The dominance of transparency in English-language translation reflects comparable trends in other cultural forms, including other forms of writing. The enormous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acquired by scientific research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the postwar innovations in advance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to expand the advertising and entertainment industries and support the economic cycle of commodity production and exchange—these developments have affected every medium, both print and electronic, by valorizing a purely instrumental use of language and other means of representation and thus emphasizing immediate intelligibility and the appearance of factuality.¹ (Lawrence Venuti,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Routledge, 1995 5)

20

베누티의 도구주의 번역모델 비판

The target of this polemic is a model of translation that I shall call instrumentalism. It conceives of translation as the reproduction or transfer of an invariant that is contained in or caused by the source text, an invariant form, meaning, or effect. [...]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is dominance have included the inferior ranking of translation practice in the hierarchy of scholarly and literary rewards, the relative paucity, reductiveness, and sheer naïveté of translation research, and a set of theoretical concepts and practical strategies that preempt a rather different model of translation that I shall call hermeneutic. (Lawrence Venuti, *Contra Instrumentalism: A Translation Polemic*,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9, 1)

21

향후 연구방향

- 베누티의 *Contra Instrumentalism* (2019) 비판적 읽기
 - 베누티의 변신은 무죄?
 - 도구주의 번역모델의 정의 비판
 - 베누티의 해석학적 번역모델 비판
 - 그렇다면 과연 대안은 있는가?

22

To be continued

(11월 25일 동국대 한중공동학술대회)

참고문헌

- Baumgarten, Stefan (2012), “Ideology and translation”, in Yves Gambier & Luc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ume 3, John Benjamins, 59-65.
- Dewey, John (1916), *Essays in Experimental Logic*, Dover Publications.
- Dizdar, Dilek (2014), “Instrumental thinking in Translation Studies”, *Target* 26(2), 206-223.
- Doorslaer, Luc van (2018), “Bound to expand: The paradigm of change in translation studies”, in Helle V. Dam et al. (eds.), *Moving boundaries in translation studies*, Routledge, 220-230.

참고문헌

Fang, Yili (2011), “Ideology of Translation vs Translation of Ideology: A Study on the Notion of Ideology in Translation Studies”, *Comparative Literature: East & West* 14(1), 155-166.

Hamilakis, Yannis (2004), “Archaeology and the politics of pedagogy”, *World Archaeology*, 36(2), 287–309.

Kelly, Louis G. (1979), *The True Interpreter: A History of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in the West*, St. Martin's Press.

Lee, Tong King (2020), “Ideology”, in Mona Baker & Gabriela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3rd edition, Routledge, 252-256.

25

참고문헌

OED -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s://www.oed.com/>>

Robinson, Douglas (1991), “Instrumentalism”, in Id., *The Translator's Tur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50-54.

Tyulenev, Sergey (2014), *Translation and Society: An introduction*, Routledge.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Routledge.

Venuti, Lawrence (2019), *Contra Instrumentalism: A Translation Polemic*,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Yates, Melissa (2019), “Instrumental Reason”, in Amy Allen and Eduardo Mendieta, *The Cambridge Habermas Lexic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99.

26

사설 번역에서 미디어 이데올로기 강화

발표일: 2022년 9월 24일
발표자: 마승혜·김순영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1. 연구 배경

1.1 한일 관계 악화

"The downward spiral" (Sakata 2020)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이후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 됨.

: 한일 무역분쟁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 '위안부' 소송

: 일본군 '위안부'를 공인된 매춘부'라고 한 하버드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

1.2 한겨레와 조선일보 이데올로기 차이 (김희범&우형진, 2016)

- 한일 문제 보도에 있어서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초점 차이

: 진보 성향의 한겨레는 한일 문제 관련 법적, 실질적 보상과 해결책에 초점

: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올바른 과거 인식에 좀 더 초점을 둠

1.3 보도자료 번역에 있어서 일반적인 가설과 실상

: a general hypothesis in the nature of reprint press is that source text ideology would remain unchanged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Gumul, 2011)

: substantial portions of the original texts in newspapers are recontextualized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as a result, ideological shifts occur when it comes to translating news articles (Elimam, 2019)

: In the case of translating news articles, it was discovered that ideological shifts do occur.

: But, in the case of translating editorials, whose function is to inform the ideology of the paper and persuade its readers, ideological reinforcement occurs during the translation.

2. 연구 문제

① 한일 문제에 관한 사설에서 나타나는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이데올로기 프레임은 어떻게 다른지?

② 사설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데올로기 프레임은 어떤 방식으로 강화되는지?

3. 연구 방법

- ①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일관계에 관한 양 신문사의 한국어 사설(Source Text, ST)과 번역된 영문 사설(Target Text, TT) 수집.
- ② 한일 문제를 다룬 한겨례 사설 총 62개(번역본 62개), 조선일보 사설 총 34개(번역본 13개).
- ③ 한일 문제에 관한 양 신문사 이데올로기 프레임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서 각 사설 제목과 제목 번역 분석.
- ④ 번역과정에서 이데올로기 프레임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설 본문 분석.

4.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4.1 Recontextualizing in News Article Translation

News websites are “arbiter[s] of truth” (Allan, 2004), but, in effect, in the process of the translation they alter communicative and informative events to make the news content conform to the political stance of the agencies (Valdeón 2007).

e.g.) the Western coverage of the 2014 Crimean crisis translated on *Inosmi*, the Russian website

: the website reconfigured the content in Western newspapers such as *The Guardian* or *Wall Street Journal* to be more in line with the Kremlin's official stances

“**the Kremlin-backed** incursion into Crimea” → “вторжениЯ в Крым (the incursion into Crimea)”

4.2 Framing and Framing Reinforcement

: Framing refers to the process in which translators - in collaboration with editors and other agents involved in the interaction - **accentuate or modify aspects of the narratives** they mediate to produce a politically charged narrative in the target context (Baker, 2006).

: Narratives can be framed through various techniques.

: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STs and TTs are framed by **selective appropriation and appraisal resources**.

① **Selective appropriation** of textual material is realized in patterns of **addition and omission** with a view to suppress, accentuate or elaborate particular aspects of narratives embedded in the source text.

② The framing can be embodied and reinforced with **appraisal resources**.

: **Appraisal** is the indication of whether the speaker/writer thinks that a person/thing/action/event/situation is good or bad.

i) The resources that realize the speaker/writer's feelings or emotional reactions.

e.g.) *I am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his is a **depressing** house nobody wants to live.*

ii) The resources that modulate the level of force.

e.g.) ***extremely** happy, totally extinct, completely innocent*

5. 분석결과

5.1 한겨레 사설 제목 프레이밍 & 제목 번역에서 이데올로기 강화

: 한겨레는 문재인 행정부(2017-2022)에 우호적이며 한일 관계 악화 원인으로 일본을 지목함 (Park et al. 2020). → 반일 프레임

: 원문 사설 제목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번역과정에서 반일 프레임 강화됨.

Date	Original Korean titles	Translated English titles
2019. 05. 29	아베의 군사대국화 추진에 힘 실어준 트럼프 (Trump, bolstering Abe's push to become a military powerhouse) ¹	Japan should reflect on its past before expanding its military capability
2019. 07. 22	“한국이 답 가져오라”는 아베의 막부가내 (Abe's reckless claim, “Korea should bring the answer”)	It's Abe that needs to provide a “decent answer”, not South Korea

2019. 09. 02	‘간토 대학살’ 외면한 일본, ‘폴란드 침공’ 사죄한 독일 (Japan ignores ‘Kanto Massacre’, Germany apologizes for ‘Invading Poland’)	Japan needs to follow in Germany’s steps and reflect on its past
2019. 11.13	미국, ‘지소미아 문제’ 해결책 일본에서 찾아야 (The US should seek a solution to ‘the GSOMIA problem’ in Japan)	Key to solving GSOMIA issue is within Japanese government, not S. Korea’s
2021. 03. 20	유엔 전문가들도 경고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UN experts’ warning of discharging ‘Fukushima Polluted Water’)	Japan should listen to UN experts’ warning against release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5.2 조선일보 사설 제목 프레이밍 & 제목 번역에서 이데올로기 강화

- : 조선일보는 문재인 행정부에 비판적임.
- : 사설 제목과 번역에서는 한일 관계 악화 원인을 한국 또는 양국 모두에 전가함.

Date	Original Korean titles	Translated English titles
2018. 05. 08	한국 대통령, 6년 5개월 만의 방일 (Korean President, visiting Japan in 6 Years and 5 Months)	Korea should mend ties with Japan
2019. 01. 28	성숙되지 못한 한·일 양국의 자세 (Immature attitudes of Korea and Japan)	Korea and Japan set poor example as allies in radar spat

2019. 06. 25	일본서 열리는 G20 한·일 정상회담 없다니 (Is there no G20 Korea-Japan summit to be held in Japan?)	Korea, Japan urgently need to patch things up
2019. 07. 23	선거끝나도 냉랭한 한·일, 파국으로 몰지는 말라 (Korea and Japan remaining chilly even after the election, don't push to the limit)	Korea and Japan must not push each other to limit
2019. 11. 18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Is it possible to handle the fallout of scrapping GSOMIA?)	Can Seoul handle the fallout of scrapping intel pact with Japan?

5.3 한겨레 사설 **본문 번역**에서 이데올로기 강화

① Intensifier를 첨가하여 의미 강도 높임

ST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 “일본이 패소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아전인수가 따로 없다.”

(Chief Cabinet Secretary Yoshihide Suga strongly argued … “the claim that Japan lost is not correct.” It is a claim from a self-centered angle.)

TT

“Chief Cabinet Secretary Yoshihide Suga added … “the claim that Japan lost is not correct.” This was a grossly self-serving reading.”

e.g.) “the training provisions for such laws are **grossly** inadequate in many states”

“you happen to read something that **grossly** misunderstands and misrepresents a huge problem”

→ 원문에 없는 강화의 ‘grossly’ 추가

→ 총 62개 사설 중 44개(71%) 사설 번역에서 intensifier를 1회 또는 그 이상 첨가함.

② 부정적 평가어 첨가

ST

“국내외의 1100명이 넘는 연구자와 단체가 참여한 세계 페미니스트들의 연대 성명은 (램자이어 교수 주장에 대해) … 일본 정부의 의도적 역사 부정과 왜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The global feminist solidarity statement, in which more than 1,100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rs and organizations participated, criticized (Professor Ramseyer's assertions), saying, “It empowers the Japanese government’s intentional denial and manipulation of history.”)

TT

“An open letter of solidarity issued by feminists around the world, including over 1,100 researchers and members of groups in Korea and overseas, similarly blasted Ramseyer’s argument, which they said ‘… colludes with and validates the Japanese state’s own intentional erasure of this violent history.’”

→ 원문에 없는 부정적 평가어 ‘violent’ 추가

→ 총 62개 사설 중 19개(30%) 사설 번역에서 부정적 평가어 첨가함.

③ 중립적 단어를 부정적 평가어로 대체

ST

“일본법과 법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역사 연구자가 아닌데도, 위안부와 강제동원 역사에 대해 일본 우익들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잇따라 발표해 왔다.”

(Literal translation: Even though Ramseyer's specialties are Japanese legal studies and economic analysis of law – rather than history – he has repeatedly published papers with the argument identical to the Japanese far right's claims about the comfort women and the history of compulsory mobilization.)

TT

“Even though Ramseyer's specialties are Japanese legal studies and economic analysis of law – rather than history – he has repeatedly published papers that parrot the Japanese far right's claims about the comfort women and the history of compulsory mobilization.”

Parrot: to repeat exactly what someone else says, without understanding it or thinking about its meaning

“Thanks for showing what an ignorant liar you are. You **parrot** Obama's Marxist dialectic lie, that reducing tax rates is ‘spending’” or “These people are happy to **parrot** what the corrupt media tell them, without one single thought”

→ (ST) 의 ‘동일한’의 의미를 (TT)에서 ‘생각없이 따라한다는 의미의 부정적 단어 ‘parrot’으로 대체
→ 총 62개 사설 중 33개(53%) 번역에서 중립적 단어 부정적 평가어 대체 사례 등장함.

<한겨레의 이데올로기 프레임과 프레이밍 패턴>

The ideological fra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tting up the anti-Japanese frame· Blaming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worsening bilateral relations
Framing patter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rengthening intensity with intensifiers· Adding negative appraisals· Replacing neutral words with negative appraisals

5.4 조선일보 사설 본문 번역에서 이데올로기 강화

① 원문에 없는 정보 추가

ST

“아베 총리는 4~6월 석 달 사이 트럼프 대통령을 세 번 만나 미·일 동맹 업그레이드를 시도한다.”
(Japanese Prime Minister Abe tries to upgrade the US-Japan alliance, having meetings with President Trump three times from April to June.)

TT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meanwhile, hopes to strengthen his country’s alliance with the U.S. by offering to pull greater military weight. He visited the U.S. just last week and Trump will make a reciprocal visit to Japan late this month, becoming the first foreign leader to meet with the new emperor.”

→ 원문에 없는 정보를 추가하여 미-일 간 친밀함을 강조함. 한국이 이웃국가들과 외교적 관계 개선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줌.

→ 총 13개 사설 중 11개(85%) 사설 번역에서 원문에 없는 정보 추가 사례 등장함.

② 원문에 없는 행위 주체 추가 및 강조

ST

“정책 기조의 전환 없이 이런 임기응변 조치로 일본의 무역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It will be a mistake to think that Japan’s trade retaliations can be thwarted by stop-gap measures without a major overhaul in policies.)

TT

“The government is making a mistake if it thinks Japan’s trade retaliations can be thwarted by stop-gap measures without a major overhaul in policies.”

ST

“일련의 반기업 정책들이 투자 축소를 낳고, 고용 악화와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기업에 총질하고 발목 잡는 자해 정책을 지속해선 일본과 제대로 붙어보기도 전에 한국 경제가 자멸하고 말 것이다.”

(These anti-business policies have triggered a vicious cycle of reduced investment, worsening employment and slowed growth. If the self-harming policy that keeps attacking companies and holding back the companies' growth continues, the Korean economy will destroy itself before it takes issue with Japan seriously.)

TT

“These anti-business policies have triggered a vicious cycle of reduced investment, worsening employment and slowed growth. It is Korea's own government that is out to stymie growth.”

→ 총 13개 사설 중 11개(85%) 번역에서 원문에 없는 행위 주체가 추가되거나 강조됨.

③ Intensifier를 사용하여 의미 강도 높임

ST

“일본이 반도체 분야의 보복에 나설 것이란 예상은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줄곧 제기돼왔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방관했다. 일본의 보복도 일본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Concerns over a Japanese reprisal have continuously been raised since the Supreme Court ruling in October last year. But the Korean government has sat back and watched, not drawing up any measures. It is said that the government found out about the reprisal from Japanese media reports.)

TT

“Concerns over a Japanese reprisal were first raised when the Supreme Court ruled in October last year that the forced labor victims can sue despite a 1965 Korea-Japan treaty settling all reparations. But the Korean government did absolutely nothing to prepare for such a scenario. In fact, the government only found out about the reprisal from Japanese media reports.”

→ 총 13개 사설 중 13개(100%) 번역에서 intensifier 추가 사례 등장함.

<조선일보의 이데올로기 프레임과 프레이밍 패턴>

The ideological fra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fraining from stoking anti-Japanese sentiment·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mending fences with Japan· Being critical to the incumbent Korean government
Framing patter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ding extra information in translation· Adding and emphasizing the agent· Strengthening intensity with intensifiers

6. 결론

- 신문 기사 번역 시에는 번역 과정을 거치며 이데올로기 변화(ideological shift)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신문 사설 번역에서는 각 미디어가 가진 이데올로기가 강화(ideological reinforcement)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경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사설 번역, 유포, 수용과 관련하여 생각해봐야 할 점을 제시함.
- 번역가들은 단어, 추가, 생략, 통사구조 변형 등의 전략이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화하여 해외 독자들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 일반적으로 번역 시 원문의 정확한 의미 보존 및 전달을 중시하지만, '위안부', '한일 무역분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강제징용 보상'과 같은 이슈는 단지 양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권, 무역,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임.
-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양국 이슈에 대해 국제 무대에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함.
- 그러므로 해외 독자들의 한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돋는 것은 중요함.
- 해외 독자가 논쟁적 사설 번역본을 읽을 때 특정 이데올로기가 프레이밍 되고, 번역 과정에 이 프레임이 강화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번역본을 읽게 되고, 이는 좀 더 균형 잡힌 의견 형성에 도움이 됨.

7. 향후 연구 과제

- 한겨레와 조선일보 사설 번역 시 각 신문사의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것은 공통적인 경향이나 세부 번역 전략은 각기 다름.
- 한겨레는 좀 더 미시적인 전략, 조선일보는 좀 더 거시적인 전략 택함
- 신문사별 사설 번역전략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연구 필요함.

감사합니다.

인간과 기계번역의 공존을 위한 담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김동미(우송대), 곽은주(세종대)

목차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선행연구- 1)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개념
 2)신문기사의 트랜스젠더 지침에 번역 고찰
- 본론
- 분석내용
- 분석결과
- 결론

서론

- 논문과 소논문의 출간 출처를 나타나는 국내 인용 사이트를 참고로 말한다면 www.riss.kr과 www.kci.go.kr의 포털 사이트를 언급할 수 있다. 두 사이트 가운데 국내의 연구 자료 가운데 소논문으로 출간되는 모든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검색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2013에서 2015년을 조사하고 2016년에서 현재 2022년까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인용횟수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까닭은 2016년에 기계와 인간의 번역 대결을 실시한 후 본격으로 대중적으로 기계번역의 상용화로 인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해이기 때문이다.

2013-2015年 학술지 인용색인 통역번역학 인용횟수

순위(인용횟수)	학술지명	논문명(출간 년, 월)	순위(인용횟수)	학술지명	논문명(출간 년, 월)
1(40)	번역학연구	구글 번역의 사례연구:2014.3	8(20)	번역학연구	웹자막과 전통 영상번역은 과연 다른가?2015.6
2(32)	번역학연구	영상번역 연구의 동향과 전망2014.6	9(19)	번역학연구	번역문의 결텍스트:주변 텍스트와 바깥텍스트에 대한 정의2015.3
3(26)	번역학연구	사법통역 교육에 관한 실행연구: 2013.12	9(19)	통역과번역	번역교육 관련 연구 동향 및 연구과제 고찰2013.12
4(24)	번역학연구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통역 교수법 사례연구:2015.3	9(19)	번역학연구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을 통해 본 지역사회통역 사례연구2014.9
5(23)	번역학연구	한국의 당대(1999-2013)번역학 동향연구 2013.12	12(18)	번역학연구	말뭉치에 기반한 한중 뉴스표제의 문장부호 번역연구2013.6
6(22)	번역학연구	한국번역학사 기술을 위한 전제와 시론2013.6	12(18)	통번역학연구	Constraints and the Applicability of ICT in the self-Training of conference interpreting Students?2013.5
7(21)	통역과번역	번역학 전문학술지의 발달과 최근 동향 2013.6	12(18)	통역과번역	공공번역 결과물 오류 유형 분석2014.4

2013-2015年 학술지 인용색인 통역번역학 인용횟수

순위 (인용횟수)	학술지명	논문명(출간 년, 월)
12(18)	통번역학구	웹툰 웬번역 양상 연구2015.8
12(18)	통역과 번역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논의2015.4
17(17)	번역학연구	국내 학부 통역전공자 인식조사:2013.9
17(17)	통역과번역	공공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시스템 연구2013.12
19(16)	번역학연구	통역 학습자들의 방과 후 자기주도 학습 분석2014.12
20(15)	통역과번역	학부 순차통역 수업에 대안적 교수법 모색2014.12
20(15)	번역학연구	언어학적 지식에 기반한 한중뉴스 표제의 기계번역.2014.12

2016-2022年 학술지 인용색인 통역번역학 인용횟수

순위(인용 횟수)	학술지명	논문명	순위	학술지명 (인용횟수)	논문명
1(52)	번역학연구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유형 고찰 2018.3	8(33)	통번역교육연구	신경망번역기 활용 학부 번역교육의 가능성 연구, 2017.12
2(44)	번역학연구	국내 기계 통번역의 발전 현황분석, 2017.6	9(32)	번역학연구	기계번역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18.3
3(42)	통번역학연구	한영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경험적 고찰, 2018.2	10(31)	통번역학연구	테크놀로지 폐러다임에서의 번역능력 재조명, 2017.11
4(41)	통역과번역	학부번역전공자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무엇인 문제이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2017.12	10(31)	통역과번역	트랜스크리에이션, 기계번역, 번역교육의 미래, 2016.8
5(39)	통번역학연구	학부 번역전공자의 구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현상학연구, 2018.2	12(28)	통번역학연구	포스트에디팅 측정지표를 통한 기계번역 오류 유형화연구, 2018.2
6(37)	번역학연구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의 출현에 대한 소고, 2017.12	13(27)	번역학연구	국내학부 번역전공자의 구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과정 및 행위연구, 2019.9
7(34)	통역과번역	특히 기계번역 결과물의 평가, 2017.4	14(26)	번역학연구	체식주의자에 대한 테보라 스미스의 영어번역 어떻게 볼 것인가? 2017.9

2016-2022年 학술지 인용색인 통역번역학 인용횟수

순위(인용 횟수)	학술지명	논문명(출간 년, 월)
14(26)	번역학연구	석사과정의 기계번역 수업에 대한 소고, 2018.9
14(26)	통번역학연구	문학작품 기계번역의 한계에 대한 상세고찰, 2018.8
17(25)	동번역학연구	언어기술 혁신과 통번역 산업의 미래, 2017.2
18(23)	번역학연구	영한 및 한영 기계번역 품질 향상을 위한 브리 에디팅 기반 제안, 2018.12
19(22)	통역과번역	인공신경망 기계 번역의 한일/일한 번역 품질에 대한 예비 연구, 2018.4
19(22)	통번역학연구	기계번역, 인간번역 트랜스크리에이션의 문제 비교, 2017.5
19(22)	번역학연구	통번역의 미래지평: 인공지능과 소통형 음복합통번역연구, 2016.6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기계번역에서 언급된 주제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크게 기계번역의 한계에서부터 포스트 에디팅에 이르기까지 다른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학계의 연구 범위를 살펴보아도 기계번역(NMT)의 역할이나 부분이 번역계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역할로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순미(2018)는 인간과 기계(NMT)의 공존을 주장하며, 경영학의 ‘확장 중심’ 이론과 함께 번역사의 직업적 관점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연구의 필요성

- 다시 말해서, 기계번역의 한계로 인해 인간과 기계의 역할을 되짚어보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박은주(2020)는 기계도 행위자로서 행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행위자로서 언급하면서 번역과 살펴본다면, 번역사회학의 이론 가운데 하나인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언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번역학계에 있어서도 진지하게 기계와 인간 간의 행위자 차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가 필요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목적

- 본 발표는 이같이 현세의 번역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기계와 인간의 역할과 부분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계와 인간의 역할 즉, 다시 말해 행위자로서 이제는 기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관해 번역사회학의 한 이론인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과 함께 살펴보면서 인간과 기계가 수행하는 행위자의 역할에 대해 재고하고자 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조망하고자 한다.

한편, 이같이 기계번역의 흐름과 엔진 성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문화현상을 어떻게 기계와 인간이 받아들이는지 이를 반영하는지 점검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빠르게 인식 변화하는 언어 가운데 하나인 ‘신문기사의 트랜스젠더’를 인간과 기계를 활용하여 검증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기 위해 첫째,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살펴보고, 둘째, 인간과 기계의 트랜스젠더 신문기사를 비교 분석해 볼

- 것이며, 그 결과를 참고로 앞으로 기계와 인간이라는 행위자에 대한 역할에 대 논의를 하고자 한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개념

- ANT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을 연구하던 프랑스의 브르노 라투르(Bruno Latour), 미셸 칼롱(Michel Callon) 그리고 영국의 존 로(John Law)가 선구자가 된다.

- ANT는 포스트구조주의와 기호학에서 시작해, 과학기술학 속에 탄생한 ANT는 사회를 바라보는 과정과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 ANT는 두 가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행위자’라는 개념이며, 둘째, ‘네트워크’라는 개념이다. 먼저 첫째, ANT의 ‘행위자’라는 개념을 살펴보면1) “어떤 행위를 하는 실체들”(Latour, 1992b: 241)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어떤 행위자에 대한 정의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겪은 다양한

-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본래 타고난 성질이나 고정된 존재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김환석, 2001:209). ANT의 개념의 2)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를 모두 포함” 하는 점이다. 이렇듯, ANT는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설계도, 표본, 기관, 병균 등 ‘비인간’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홍성욱, 2010; 최수연, 2015). 따라서 ANT에서 행위자란 인간은 물론이고, 기계, 컴퓨터, 책을 포함한 비인간 행위자까지 포괄한다.

- 둘째, 네트워크(network)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면, ANT는 네트워크를 1)“그 성격이 아직 미결정된 실체들 사이의 비구체적 관계들의 집합”(Callon, 1993)이라고 정의한다(최수연, 2015 재인용). 즉, 앞에서 설명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로 구성되어서 특정한 의견에 동조하고 지지해주는 관계 혹은 집단을 의미하는데 이를 끝는 역할을 한다(최수연, 2015년 재인용). 2) 행위자 네트워크는 현대 기술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와는 다소 다르다. ANT의 네트워크는 일반적 의미가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이동이 남긴 흔적 ”이라는 것이다(Latour, 2.005)

- 셋째, ANT의 개념 특성 가운데 ‘번역’이 있다. ANT의 번역은 일반적인 의미의 번역과는 다른 개념이다. ANT은 이질적인 연결망의 구축을 번역이라고 하는데, 과학과 기술이 만들어지기 위해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이 소수의 강력한 대표들(과학자, 엔지니어)에 의해 긴밀한 연결망으로 서로 결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김환석, 202; 최수연, 2015 재인용). ANT의 번역은 “네트워크의 건설 과정”이다(홍성욱, 2010). ANT는 행위자들이 자신의 다양하고 모순적인 이해관계를 수정, 치환, 위임하는 번역의 연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최수연, 2015).

선행연구: 3) 신문기사의 트랜스젠더 지칭어 번역(한·영)

- 김동미·정지수(2021)는 조선일보의 신문기사(2020년 1월 30일자)에서 박한희 변호사에 관한 기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자(①영어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약 3년 이상 번역가로 활동 ②번역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현재 대학에서 영어 관련 강사로 재직 ③번역을 전공으로 학위를 받지 않았으나 대학에서 번역 강의를 8년 이상 경력)를 대상으로 트랜스젠더의 성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박한희 변호사를 가리키는 ‘그’나 ‘박 변호사’ 또는 ‘주어가 생략된 박 변호사’를 지칭하는 경우의 8개를 3명의 번역자에게 번역하게 하였다.

선행 연구: 3) 신문기사의 트랜스젠더 지칭어 번역(한·영) 결과물

순서	원천 텍스트	번역가 1)	번역가 2)	번역가 3)
①	박 변호사	Lawyer Park	Lawyer Park Han-hee	Attorney Park
②	Ø	She	She	She
③	Ø	Lawyer Park	Lawyer Park	Attorney Park
④	박 변호사	She	She	Attorney Park
⑤	그	She	She	She
⑥	박 변호사	Lawyer Park	She	She
⑦	그	She	She	She
⑧	박 변호사	She	She	Attorney Park

- 번역자 ①영어 관련 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번역가로 활동한 경우, 박한희 변호사(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명사로 대체하여 성에 대한 정체성이 구별되지 않은 목표언어로 번역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 번역자 ② 번역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영어관련 학과에 재직 중인 경우는 비교적 중성적인 정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lawyer Park, 으로 번역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 번역자 ③ 번역으로 학위를 받지는 않았으나, 대학에서 번역 강의 경력이 8년 이상 되는 번역자로, 트랜스젠더 박한희 변호사를 바뀐 성으로 번역한 것이 아닌, 중성적인 명사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본론

- 그렇다면, 그 동안에 인간이라는 행위자가 존재하였는데, 기계라는 행위자인 네트워크를 만나서 이들이 번역을 할 때, 어떻게 존재하며 상호작용하는지 그 관계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기계번역의 엔진은 딥러닝을 통하여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학습을 하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축적한다. 이렇게 빨리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계(NMT)인 행위자와 인간이라는 행위자 간에 사회·문화적이면서,

- 이데올로기적일 수도 있으며, 문화적으로 빠르게 코드가 바뀌는 영향의 대상으로 ‘신문기사의 트랜스젠더’를 예로 들어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어떤지 행위자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즉, 기계와 인간이라는 행위자들 간의 번역결과물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번역계에 있어서의 행위자 역할에 대한 조망을 해볼 것이다.

분석내용

- 2022년 5월 12일자 조선일보에서 “하리수 트랜스젠더”라는 기사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의 일부 발췌 내용을 인간과 기계가 번역한 결과물이다.
- 인간번역사의 기준은 번역학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번역가이며, 기계번역의 엔진은 네이버 파파고를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트랜스젠더 신문기사원문

•<ST>

- **하씨**는 차별금지법이란 비정규직, 이주 여성들, 노약자, 장애인 등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라며 성소수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성생활은 개인적인 얘기고, 아동성애자는 범죄지 절대로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은 머릿속이 제대로 되신 분인지 병원 가서 상담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하씨**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면담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하씨**는 지난달 말 여야 지도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면담을 요청했으며 민주당만 응했다. **하씨**는 “개인적으로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자리에 오르기 전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데 면담을 안 해주시더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이 대표에게도 면담 요청을 드렸는데 (대화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인간의 트랜스젠더 신문기사 번역결과물

TT1

- Ms. Ha emphasized that the definition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to protect those in need of consideration, such as non-regular workers, migrant wom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and not limited to sexual minorities. She said firmly, "While it is said that an individual's sexual life is personal, pedophiles should never enter the anti-discrimination law because it is a crime." She added, "People who make such claims should go to the hospital to see if their brains are really working properly."

인간의 트랜스젠더 신문기사 번역결과물

TT1

- She also expressed her regret for not having an interview with Lee Jun-seok, leader of the People Power Party (PPP). At the end of last month, she requested a meeting with the ruling and opposition leaders regarding the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and only the Democratic Party responded. She said, "Personally, I had a personal acquaintance with Lee Jun-seok before joining the People Power Party (PPP) party leader, but he didn't interview me." The day before, she said, "I also asked for an interview with Lee Jun-seok, and I hope he has an opportunity to talk with him."

기계의 트랜스젠더 신문기사 번역결과물

- TT2
- Ha stressed that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not limited to sexual minorities,
- saying it is to protect those who need consideration, such as non-regular workers,
- migrant wom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He said, "Individual sex life is a
- personal story, and child sex is a crime, which should never be entered into the
- anti-discrimination law." He added, "I hope those who claim in that way will go to
- the hospital and consult if they have a good mind."

기계의 트랜스젠더 신문기사 번역결과물

- TT2
- Ha also expressed regret over the failure of the meeting with Lee Joon-seok, the
- representative of the public. Ha asked the leader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 parties late last month for a meeting on the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 law, and only the Democratic Party responded. Mr. Ha said, "Personally, I had a
- personal acquaintance with Representative Lee before he became the representative
- of the power of the people, but he didn't have a meeting." He also said the
- previous day, "I asked CEO Lee to have a meeting, and I hope I have a chance to
- talk."

분석결과

- 앞서 두 행위자인 인간과 기계(NMT) 간에 하리수에 관한 트랜스젠더 신문기사의 발췌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겠다.
- 우선 “트랜스젠더”라는 언어를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관찰할 때, 20여년, 10년 전, 5년 전, 그리고 2,3년 전에 걸쳐서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성정전환자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변화하였다. 20여년 전에는 음성적으로만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으며, 미디어 상에도 공개를 할 때

- 많은 여과과정을 걸쳐서 대중에서 공표되었다. 하지만, 2022년도인 현재 이들의 목소리는 과거와 사뭇 다르며 이에 따라서 대중들의 인식 또한, 여전한 충돌을 야기하고는 있으나 바라보는 시선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 즉, 김동미, 정지수(2021), 김동미, 탁진영(2022)에서는 한국어 신문의 고유 문체(여성과 남성을 모두 그로 지칭)를 3명의 전문 번역가에게 번역을 하게 하였을 경우,

- 번역자 ①영어 관련 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번역가로 활동한 경우, 박한희 변호사(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명사로 대체하여 성에 대한 정체성이 구별되지 않은 목표언어로 번역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 번역자 ② 번역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영어관련 학과에 재직 중인 경우는 비교적 중성적인 정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lawyer Park, 으로 번역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 번역자 ③ 번역으로 학위를 받지는 않았으나, 대학에서 번역 강의 경력이 8년 이상 되는 번역자로, 트랜스젠더 박한희 변호사를 바뀐 성으로 번역한 것이 아닌, 중성적인 명사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는 결과물을 얻었다.

인간과 기계의 신문기사 트랜스젠더 번역결과물 (박한희 변호사 기사)

순서	원천 텍스트	번역가 1)	번역가 2)	번역가 3)	Papago(AI)
1	박변호사	Lawyer Park	Lawyer Park Han-hee	Attorney Park	Lawyer Park Han-hee
2	Ø	She	She	She	I
3	Ø	Lawyer Park	Lawyer Park	Attorney Park	I
4	박변호사	She	She	Attorney Park	Park
5	그	She	She	She	He
6	박변호사	Lawyer Park	She	She	Lawyer Park
7	그	She	She	She	he
8	박변호사	She	She	Attorney Park	Lawyer Park

- 인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의 번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기계(ANT) 번역결과물을 비교한 도표를 참고하면, 기계번역은 ‘박한희 변호사’를 가리키는 한국어의 원문에서 주어가 생략된 부분을 잘못 번역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으며, 신문 문체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번역할 때 ‘he’로 지칭한 결과물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번 더 일어났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것은 기계번역이 글자 그대로는 번역을 하였지만, 사회문화적으로 빨리

- 꾼 트랜스젠더의 성 문화를 기계는 번역하지 못하는 경우였다.

이것은 트랜스젠더의 성(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원문의 성전환자의 성을 전문 번역가들은 남성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또한, 앞에서 파파고와 인간이라는 행위자 간의 번역 결과물을 비교해 보더라도 인간은 바뀐 성으로 번역한 반면, 기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남성 대명사로 번역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결론

- 여기가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2가지가 있다.
- 첫째, 트랜스젠더와 같이 사회문화적으로 빠르게 인식이 변화될 수 있는 다소 추상적인 언어를 인간은 변화를 인식하여 번역을 하였지만, 기계는 아직 이에 대한 정보가 딥러닝 되지 못하여 문화적으로 바탕이 되어 번역되어져야 할 트랜스젠더의 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번역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렇게 사회문화적으로 변화하는 언어의 ‘time gap’을 인간이 줄이기 위해 포스트 에디팅 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이다.

- 둘째, 이러한 결과물을 첫번째 분석을 바탕을 볼 때, 앞으로 기계가 오류(사회문화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의 번역결과물을 다양으로 양산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을 때(매거진 한경, 2016; 12월 12일자), 인간이 이를 어떻게 컨트롤 하여 인간에게 맞는 번역결과물을 양산할 수 있게 되는지 그 방법면에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며, 기계가 인간에게 이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행위자로서 어떠한 위치가 주어져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 가령, 암암리에 2015년까지는 인간이 번역에 있어서 주된 행위자였는데 기계번역이라는 또 다른 행위자가 생겨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번역계에 번역과정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제 2의 행위자가 생겼다. 그런데, 이 행위자(기계번역)는 대량으로 번역 결과물을 양산할 수 있기에 인간이라는 행위자에 행위자로서 위협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행위자 네트워크의 이론에 따라 행위자의 주객이 유동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대량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반영을 시키지 못하는 기계번역이 대량으로 번역 결과물을 양산할 경우, 지향적으로 번역결과물을 생산하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서 행위자의 주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포스트 에디팅의 문제는 물론이고 기계가 인간이 원하는 선한 지향점으로의 행위자로 이끌기 위해(매일경제, 2019; 10월 25일자), 즉 행위자가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과 번역에 있어서 어떠한 전제조건들이 행해져야 하는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영번역수업 개선을 위한 시도로서 팀티칭 사례 모색

평택대학교
최경희

연구 배경

- 한영번역 수업은 통번역과정에서 필수
- 영어를 B언어로 사용하는 교수자가 수업
- 번역실제와 교육 간 차이
- 팀티칭 추진
- 여전히 남은 질문들...

한영번역 수업: 영어 원어민 교수자

- 통번역대학원 10개교 한영과
 - 영어 원어민 교수자 있는 곳: 2곳
 - 100% 한국인 교수자: 8곳
- 학부 통번역학과/통번역학부 3개교 4캠퍼스
 - 모두 한국인 교수자만

B언어 방향 번역 및 교육

- 영어가 A언어인 한영번역 교수자 부족
- 수요와 공급 측면
- 희소 가치, 요율 차이

강의 방법

- 전통적 방식(한국인 교수자)
- 팀티칭(한국인 교수자+원어민 교수자)
- 혼합방식(예. 한국인 교수자+원어민 감수)
- 기타...

문헌

- 팀티칭 관련 논문: 영어 등 언어교육
 - 초중고 대상
김정희 2005, 김영미 2007, 장형지 2009
 - 대학 영어 교육
김성식 2010, 김미영과 김재윤 2013, 박옥희 2015, Seonmin Hun and Jee Eun
- 번역학: 감수 및 감수자 관련 논문
이향 2003, 2004; 박지영 2018, 2020, 2021

팀 티 칭

- 김성식 2010, 박옥희 2015
- Cha 2000, Kim 2005, Na 1997, Park 2007
 - 대학영어 기초
 - 원어민이 대화 진행, 한국인은 관찰 및 필요시 번역 제공
- Huh and Lee 2014
 - 원어민의 직관과 한국인의 분석적 언어기술
- Huh and Lee 2015
 - 20팀, 듣기.읽기.쓰기.말하기 등 4 스킬에 적용.

박지영(2020)

- 감수자는 번역 경력자가 적격(이중 언어구사자 ST 확인)
- 원어민 감수 품질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정례화
- 원어민 감수자를 위한 지침과 교육 제공
 - 원문 확인 필요성
 - 내용의 논리와 사실 관계
 - 번역사와 감수자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 등 정보 취합 제공

팀티칭과 번역 교육

- 행정적인 문제(학교 측 지원 의지, 시수배정, 타 수업과의 형평성, 학점 수)
- 강의 계획 및 수업 내용(수업 구성, 역할 분담, 교수간 관계/협업)
- 감수를 수업에 접목하는 방법
 - 번역경험이 있는 감수자가 드룸
 - 원어민 감수 품질 평가 및 감수자 교육

발표자의 경험

- 팀티칭
 - 한 학기 동안 원어민 강사와 4학점 강의
 - 한국인 수업진행: 한국어 원문 분석, 문법, 일부 표현
 - 원어민 수업진행: 영어 표현
- 한국인 교수자 강의 + 영어 원어민 감수
 - 7 학기, 2+1학점
 - 한국인 수업 진행: 한국어 원문 분석, 문법, 일부 표현
 - 원어민 영어 표현 피드백만 제공

팀 티칭 사례 모색(하이브리드 유형)

- 행정적인 문제(학교 측 지원 의지, 시수 등) => 2+2 -> 2+1, 피드백 + 수업?
- 강의 계획 및 수업 내용(역할 분담) => 한국인이 원문 분석, 문법, 일부 표현 피드백, 원어민이 영어 표현 및 영어 글쓰기 제반 (동일인이 영작문 수업 담당)
- 감수를 수업에 접목하는 방법
 - 번역경험이 있는 감수자가 드룸 => 적어도 논문을 써본 사람, 샘플 번역 사전에 제공
 - 원어민 감수 품질 평가 및 감수자 교육 => 학생이 주로 범하는 실수 관련 특강, 학생 질문 및 평가, 논문 및 책 추천

학생 설문조사: 팀 티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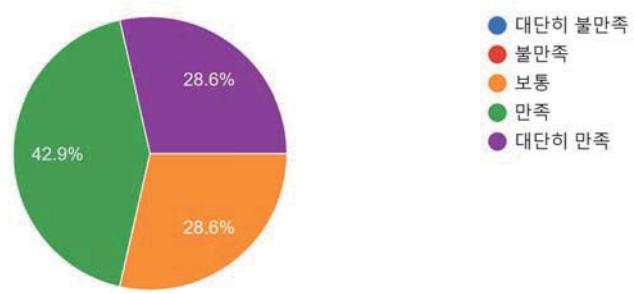
1) 한국인 교수가 출발어 텍스트 내용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영어 원어민 교수가 감수를 하는 팀티칭 방식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알려주세요.
응답 14개



학생 설문조사: 수업 분담 방식

2) 한국인 교수가 출발어 텍스트 내용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영어 원어민 교수가 감수를 하는 팀티칭 방식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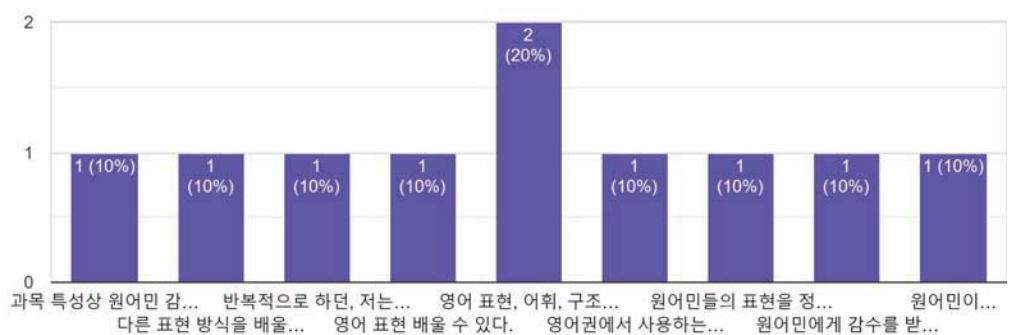
응답 14개



학생 설문조사: 수업 방식에 만족할 경우

만족할 경우 어떤 점이 만족스러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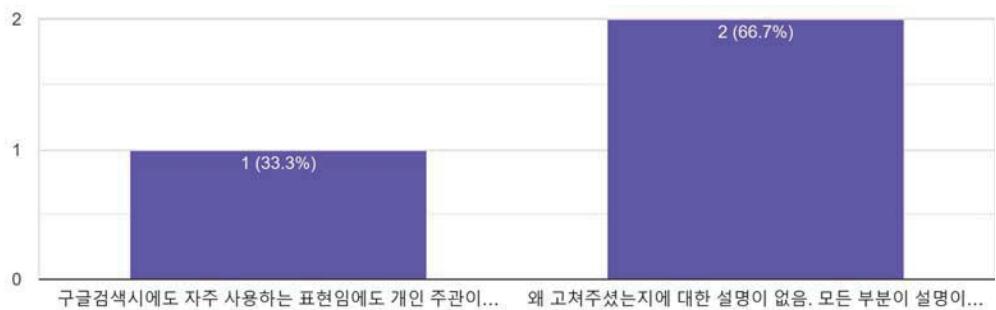
응답 10개



학생 설문조사: 수업 방식에 불만족할 경우

불만족할 경우 어떤 점이 불만족스러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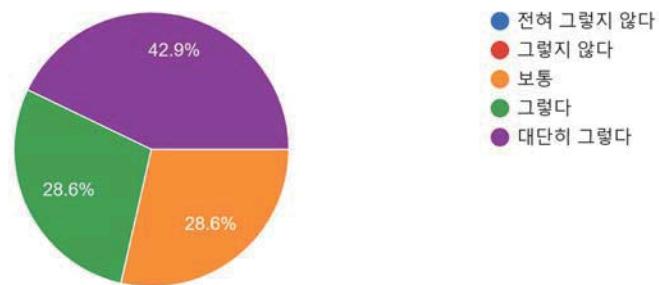
응답 3개



학생 설문조사: 다른 학생에게 권유

6) 이러한 팀티칭 한영번역수업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권하고 싶은가?

응답 14개



감수자 설문조사

1. In what areas do you find room for improvement in their work?

I think the students struggle to construct natural-sounding English sentences. Since Korean sentences differ in structure and often include many adjectives and phrases, the students find it difficult to include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in their translations while also maintaining a natural tone.

2. What would be your advice for the students who would like to improve their English/translation?

I would advise them to read and listen to as much English materials as they can. I think the most effective way to learn what natural English sounds like is to consume English media that is slightly more difficult than their current level, so they don't waste time or become frustrated. English dramas on a variety of subjects would be a good place to start, so they will learn how natural English speeches and monologues sound and then use that knowledge in their translations.

3. What would be your advice for the teacher who would like to help their students better?

I think the students could benefit from more examples of translated texts to help them with the natural-sounding English issue.

감수자: 학생이 주로 범하는 실수

- 백락(배경 조사)
- 문법
 - 기본 문법
 - 문장 구조
- 표현: 정확성, 다양성

한영번역 팀티칭 관련 제안사항

- 행정적인 문제
- 강의 계획 및 수업 내용
- 감수를 수업에 접목하는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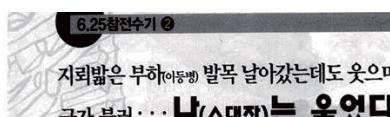
참고문헌

- 김미영과 김재윤 (2013) 교양영어 및 그 팀티칭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인 교수와 원어민 교수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언어과학, 20(2): 31-56.
- 김성식 (2010) The Role of Teachers in Team Teaching. 교원교육, 26(1): 113-137.
- 김영미 (2007) 원어민과 내국인 영어교사의 효율적 팀티칭을 위한 단계별 협동 전략 기초연구. 영어어문교육, 13(3): 177-201.
- 김정희 (2005) 팀티칭에 의한 대학영어교육효과에 관한 연구. 현대영어교육, 6(2): 119-133.
- 박옥희 (2015)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의 팀티칭에 의한 효과적인 교양영어프로그램 방안. 외국학연구, 31: 41-70.
- 박지영 (2018) 국내 감수 실무 관행에 관한 고찰: 감수 절차 및 감수 항목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2): 147-173.
- 박지영 (2020) 감수자 자격과 감수품질에 관한 제언: 한영번역에 대한 원어민 감수를 중심으로. 통역과번역, 22(3): 1-28.
- 박지영 (2021) 원어민 감수자의 자격, 능력, 직무에 관한 고찰. 번역학연구, 22(3): 137-164.
- 이향 (2003) 번역률 감수(revision)의 정의.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5(1): 163-181.
- 이향 (2004) 번역률 감수기준의 변천 고찰.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6(2): 59-79.
- 장형지 (2009) 교양영어회화 과목을 위한 원어민, 한국인 교수의 팀티칭에 관한 연구.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4(1): 218-236.
- Cha, K. (2000) Practical English Education through Team Teaching with Native English Teachers. Foreign Language Studies, 14: 225-241.
- Huh, S. and J. Lee (2014) Team-Teaching in a University General English Program: A Case of Native and Korean Teachers,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9(2): 1-32.
- Huh, S. and J. Lee (2015) An Instructional Model of Team-Teaching in a University General English Program.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2(2): 197-223.
- Na, E. (1997) Improving Communication Ability by the Co-teaching with Native Speakers.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6: 165-172.
- Park E. (2007) A Study of the Ways of Effective Teaching Method of Team Teaching with Native Speaking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러시아 노래 번역 연구 -군가를 중 심으로

2022년 9월 24일
육군사관학교 유정화



6.25 참전수기 ②
**지뢰밟은 부하(이동병) 밭목 날아갔는데도 웃으며
군가 불러… 나(소대장)는 울었다**

이 찬식 예비역 육군준장

【그는 그를 부둥켜안고 다시 선임하사관 한상사를 불렀다.
잠시 후 한상사가 달려왔다. 그러나 그도 후승 대책에는 별 도리가 없는 듯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중대장에게 무전으로 부상자 발생을 보고했더니 아직 포란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나 있는 곳까지 중대장이 달려왔다.
중대장 정창호 중위는 침착했다. 내 어깨를 가볍게 두손으로 감쌌다.
“이소위 걱정마라. 곧 부상병을 후송시키겠다. 포란은 눈이 없어 아무데나 떨어진단 말이야. 호흡 더 깊게 파는 길밖에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 없소. 알겠소? 이소위!”
중대장은 나와 한상사의 긴장을 풀어 줄 양으로 이러한 말을 남기고 다시 중대 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 중대장의 악속대로 노무자들이 식사를 운반해 오고 가는 편에 부상병을 업고 내려갔다.

지세가 혐한데다 적의 저항이 위낙 강해 옮겨달싹 못해

나는 이러한 처참한 광경을 처음 겪게 되면서 선임하사관 한상사와 향도설증사에게 앞으로의 소대 운영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내 혼자 힘으로 청소대원의 위급 사태를 일일이 담당하다 보면, 정작 소대의 전투지휘가 소홀해질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행히 이번 사태는 전투중이 아니라서 지휘의 혼선이 없었지만 만약 공격전투시거나 적의 공

지뢰밟은 이동병 밭목 날아갔는데도 군가 불러…나는 울었다

그러나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이제까지 없던 대인지뢰를 적이 밤 새 깔아놓아 지뢰가 터지자 바람에 공격이 중단되었다.

적은 제1토치카의 실패와 이제 실시된 제2토치카에 대한 한국군의 공격을 경험하고 그 대비책을 세운 것이다.

적이 매설한 지뢰에 의하여 내 사랑하는 부하들의 밭목이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한쪽 밭목이 잘리운 김복만 이병을 구출하기 위하여 나는 뛰쳐나갔다.

소대원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김복만 이병을 끌고 내려왔다. 그는 걸려오면서 나에게 태연한 척 하였다.

“소대장님, 편찮습니다. 아직 목숨이 끊어있습니다.”

밭목이 잘린 상처 부위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김복만, 내가 꼭 너를 살려줄 터이니 용기를 잃어서는 안돼.”

위로의 말을 했더니 그는 억지로 웃음을 떠면서 군가를 불렀다.

“양양한 앞길을 바라볼 때에—기습에 패도치는 애국의 백백.”

한쪽 밭이 절절 깊여 내려가는 데도 그는 계속 우렁차게 군가를 불렀다.

나는 그를 끌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순결한 부하로부터 끄적이는 전우애를 느꼈기 때문이다.

군가

군가는 종종 광기어린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과대한 이상 및 살상을
선동

진부하고 단순하며 속어
및 욕설 등 저속한 표현

애국가, 국민가,
전시가요, 투쟁가,
혁명가, 노동가, 향토가,
선전가 등 포함

전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불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렸으며 현재에도
계속해서 애창

군가란

- 군악-군 통제, 훈련, 군인의 전투 및 미적 훈련, 모든 시민의 애국심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음악 - <https://ru.wikipedia.org/>
- 군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개인 및 사회적 사건을 반영하는 노래로 만들어진 음악 작품, 군가는 전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
- 군가는 시대의 분위기를 정확하고 풍부하게 전달하는 장르로 어떤 다른 예술 장르보다 많고 자주 애용되는 노래라는 특성 상 특정 시대 및 그 일면을 단단히 각인 시킨다. -R. Rozhdestvenskiy

군가의 기원 및 발전

- 전쟁이 기원전부터 존재함에 따라 병사 및 전투를 고무하는 음악도 함께 존재
- 현재 군가로 불리는 음악은 대부분 근대 시기 만들어짐
- 새로운 군대 문화 이입으로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군가 도입

예) 강한친구 대한육군(2006)/나를 넘는다(2012)

장르별 군가 구분

행진곡	무도곡	노래
«Моя Москва»	«Случайный вальс»	«Алеша»
«В путь»	«Синий платочек»	«Соловьи»
«До свиданья, города и хаты»	«Только на фронте»	«Огонек»
«Нам нужна одна победа»	«В землянке»	«Прощайте, скалистые горы»
«День Победы»	«В лесу прифронтовом»	«Ой, туманы мои, растуманы»

군가 작곡가

- **Самые известные поэты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Николай Тихонов, Александр Твардовский, Алексей Сурков, Ольга Берггольц, Михаил Исаковский, Константин Симонов.

Константин Михайлович Симонов



가사 내용에 따른 구분

장병	«Священная война», «Песня смелых», «Песня артиллеристов»
동원	«Ой, туманы мои, растуманы», «Если завтра война», «Моя Москва»
공격	«Песня о фонарике», «Два Максима», «Песня о бушлате», «Марш Артиллерии»
분노와 용감함	«Песня защитников Москвы», «Моя Москва», «Шумел суворо Брянский лес», «Хотят ли русские воины»
업적과 영웅	«Песня о «Гремящем»», «Сердце танкиста», «Песня о Днепре», «Заветный камень», «Три танкиста»
전선에서의 우정	«Давай закурим», «Вася-Василёк», «Только на фронте»,
승리	«Песня о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День Победы», «Дорога на Берлин», «Казаки в Берлине», «Нам нужна одна победа»
전송 및 이별	«Прощание», «До свиданья, города и хаты», «Прощайте, скалистые горы»,
여성	«Катюша», «Случайный вальс», «Лизавета», «Смуглянка»
사랑	«Синий платочек», «Когда песню поешь», «Огонек»,
편지	«В землянке», «Жди меня», «Есть на севере хороший городок», «Темная ночь»
진혼곡	«На безымянной высоте», «Москвичи», «Алеша»,
회상	«Вечер на рейде», «Эх, дороги...», «В лесу прифронтовом», Давно мы дома не был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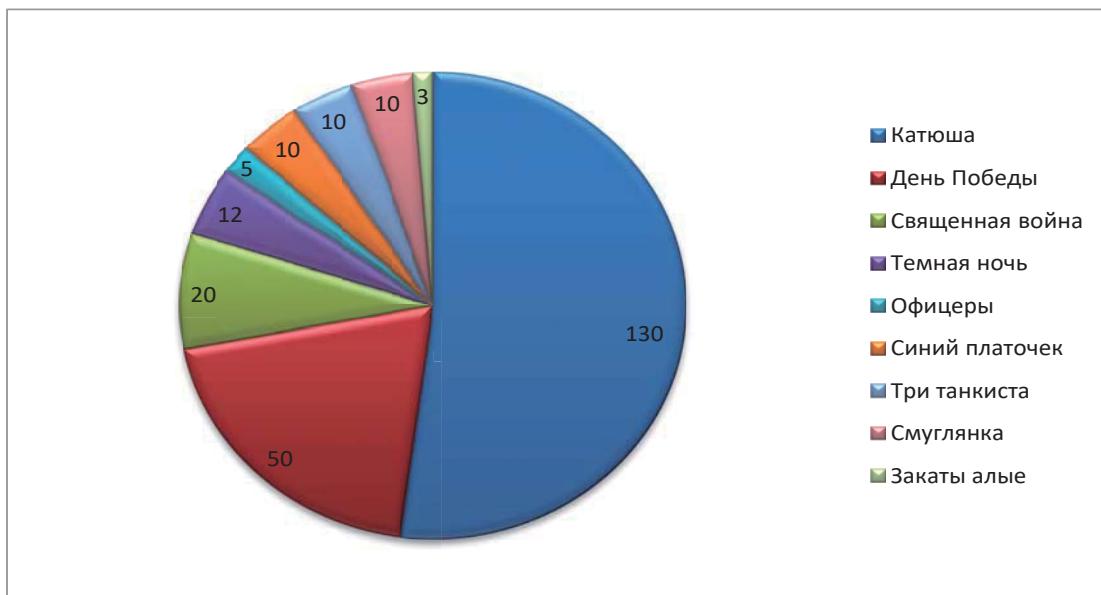
시대별 군가 구분

1930년대	1941-1945년	1950-70년대	현대
«Прощание Славянки»	«Священная война» «Вечер на рейде»	«Эх, дороги...» «Алёша» «Нам нужна одна п	«Мы знаем о войне л ишь понастышке» «Тучи в голубом»
«Три танкиста»	«В землянке»	«Нам нужна одна п	«Снегири»
«Катюша»	«Случайный вальс»	«обеда»	«Закаты алые»
«Синий платочек»	«Темная ночь»	«День Победы»	«Под небом России»
«Смуглянка»	«В лесу прифронтовом	«Хотят ли русские	«Офицеры»
«Авиамарш»	»	войны»	

시기별 군가 구분(쓰지다 마사노리, 2015)

내셔널리즘의 여명	국민국가의 성쇠	이데올로기 시대	총력전 체제 완성	다극화하는 세계
신이여, 차르를 지 켜주소서 러시아 만세 동지들이여 용감하 게 나아가라 노동자의 마르세예 즈 그대는 죽지 않았 다 만주의 산에서 신앙과 차르의 어 머니인 성스러운 러시아를 위해	하얀군대와 검은 남작 계곡을 건너, 산을 넘어 항공 행진곡 부돈니 행진곡 엘렉세예프스키 연 대가	풀류시카 폴레 코민테른의 노래 붉은 군대 기병대 의 노래 스탈린 찬가 스탈린 고향곡 볼셰비키 당가 만약 내일 전쟁이 일어나면 카츄샤 3인의 전차병 소비에트 전차병 행진곡	성전 모스크바 방위군의 노래 소비에트 군의 노 래 두 명의 막심 등불 소비에트 연방국가 베를린에서 돌아오 다 RONA여단 행진곡 러시아 해방군의 노래	불가리아-러시아 전략로켓군 행진곡 가가린 행진곡

러시아 군가 인기 순위(2017)



카츄사 번역1

번역1 쓰지다 마사노리	번역2 (Youtube)	번역3 ((Youtube))
사과 꽃 배 꽂이 피고 냇가에 안개 낀 무렵 카츄샤는 나아갔다. 높고 험한 강변으로	사과꽃 배꽃이 필 때 강위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카츄샤는 강 기슭으로 갔었지요 높고 가파른 강 기슭으로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었다 안개가 강위로 떠올랐다 해변에 도착한 카츄샤 높은 은행으로 가파른 곳으로
나아가며 아가씨는 노래했다. 대초원을 나는 회색 독수리를 사랑의 편지를 주었던 그 그리운 사람을	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초원의 잿빛 독수리에 대하여 그녀가 사랑하고 그녀의 편지를 간직하고 있는 이에 대해서	나가서 노래를 시작했어 회색 회색 독수리에 대해서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 그녀가 소중히 간직한 편지에 대해
아아 아가씨의 노래 소리여 빛나는 해를 따라 날아가렴 가서 조국을 지키는 병사에게 카츄샤의 인사를 전해주렴	오! 노래야 처녀의 노래야 날아라 밝게 빛나는 태양을 따라 날아라 그리고 머나먼 국경의 병사에게 카츄샤로부터의 사랑을 전해다오	오 그대 노래, 소녀의 노래 당신은 맑은 태양을 따라 그리고 최전선의 파이터에게 Katyusha 에서 인사
그렇게 순박한 그녀를 떠올리도록 노래소리를 듣게 하렴 병사는 조국을 지키고 카츄샤는 사랑을 간직하도록	그가 순박한 처녀에 대해 회상 할 수 있도록 그가 그녀의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그가 조국을 지킬 수 있도록 카츄샤가 사랑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가 단순한 소녀를 기억하게 하라 그가 그녀의 노래를 듣게 하라 그가 조국을 보호하기를 그리고 Katyusha는 사랑을 구할 것입니다

카츄샤 번역2

번역4 ((Youtube))	
<p>라스쓰비딸리 야블라니 이 그루쉬 빠쁠릴리 뚜마느 나드 리꼬이 빅하딜라 나 베렉 까쮸샤 나 빅소끼야 베렉 나 끄루또이 빅하딜라 빼스뉴 자바딜라 뿐라 스찝노바 씨자바 아를라 뿐라 따보 까또라바 류빌라 뿐라 따보 치 빼스마 베례글라 오이 띄 빼스냐 빼센까 데비챠 띄 리찌 자 야스님 쓸느썸 브슬레드 이 바이쭈 나 달님 빠그라니체 아뜨 까쮸쉬 빼례다이 뿐리벳 뿐스찌 온 브스쁨낫 데부쉬꾸 뿐라스뚜유 이 우슬리쉿 깎 온나 빠욧 뿐스찌 온 젬류 베례좆 라드누유 아 류봄 까쮸샤 스베례좆</p>	<p>사과꽃 배꽃이 피었지 구름은 강 위를 흘러가네 카츄샤는 강 기슭으로 나와 높고 가파른 강둑을 걸어가네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네 초원의 잣빛 독수리에 대해서 사랑하는 이에 대해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는 이에 대해서 오! 노래야, 처녀의 노래야 저 빛나는 해를 따라 날아가 머나먼 국경의 병사 하나에게 카츄샤의 인사를 전해다오 그로 하여 순박한 처녀를 생각케 하고 그녀의 노래를 듣게 하렴 그로 하여 조국을 수호하게 하고 카츄샤가 사랑을 간직할 수 있도록</p>

카츄샤 번역3



카츄샤 번역4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어
<p>그것은 우리의 투쟁의 빛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충실히 따른다 청년, 노인, 우리 모두 외친다 영원하라 EAM(그리스민족해방전선)이며 청년, 노인, 우리 모두 외친다 영원하라 EAM이며 EAM은 우리를 배고픔에서 구해주었다 노예제로부터 우리를 다시 구해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민주주의가 있다 영원하라 EAM이며 청년, 노인, 우리 모두 외친다 영원하라 EAM이며</p>	<p>잔인한 죽음이 우리를 덮쳐온다면 잔혹한 복수가 파르치잔으로부터 오라 이제 확실한 것은 비열한 파시스트 반역자의 가혹한 운명이다 이제 확실한 것은 비열한 파시스트 반역자의 가혹한 운명이다 바람이 멈추고 눈보라가 조용해지면 자랑스러운 파르티잔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우린 승리했고 비로소 자유롭다 그의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우린 승리했고 비로소 자유롭다</p>	<p>사과꽃 피어오르고 강물에는 안개가 피어올라 그대 없는 마을에도 봄은 살며시 다가오네 그대 없는 마을에도 봄은 살며시 다가오네 물가에 서서 부른다 카츄샤의 노래 봄바람 부드럽게 불어 꿈이 솟아오르는 하늘이여 봄바람 부드럽게 불어 꿈이 솟아오르는 하늘이여</p>

카츄샤 번역4

한국	영국	프랑스
<p>사과꽃과 배꽃 활짝피고 강물위로 안개끼인 날 높고 가파른 강기슭 거닐며 카츄사는 노래 부른다 높고 가파른 강기슭 거닐며 카츄사는 노래 부른다 멀리 있는 님의 편지 받고 그리움에 눈물 흘리며 높고 가파른 강기슭 거닐며 카츄사는 노래 부른다</p>	<p>오 노래여, 처녀의 진정한 사랑의 노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태양과 함께 떠나는 여행 카투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내 인사를 한 사람씩 전해 줘 카투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내 인사를 한 사람씩 전해 줘 내가 진심이라는 걸 그에게 알려줘 내가 보내는 러브송을 그에게 들려줘 우리 집을 지켜면서 감사하다고 전해줘 진정한 카투샤는 우리의 사랑이 지켜줄거야</p>	<p>사과나무에 꽃이 피고 물 위의 안개를 물들이며 카츄샤는 강위에 탑을 세웠다 그리고 그녀의 노래는 갈대밭에 맴돌았다 카츄샤는 강위에 탑을 세웠다 그리고 그녀의 노래는 갈대밭에 맴돌았다 파란 대초원의 독수리의 노래야 태양은 너를 인도할거야 그녀가 편지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카투샤의 달콤한 보물에게</p>

카츄샤 번역4

핀란드	중국	스페인
혼자 지나가고, 조용히 노래한다 그 파란 눈동자한테 말이야 항상 기억하시던 분에게 내가 사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항상 기억하시던 분에게 내가 사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라일락의 꽃이 지고 장미 한 송이가 수면위를 달린다 아름다운 카츄샤 강가에서 높은 카츄샤 강둑에서	배꽃 온 세상 두루 피던 때 강가엔 부드러운 천이 나부끼고 있었지 카츄사는 험준한 강기슭에 서서 아름다운 봄 빛처럼 노래한다네 카츄사는 험준한 강기슭에 서서 아름다운 봄 빛처럼 노래한다네 아가씨가 고운 노래 부르네 그녀의 노래에는 초원의 독수리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오	평험한 소녀를 생각하게 한다 그녀가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도록 하라 조국의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카츄샤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조국의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카츄샤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조국의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카츄샤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조국의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카츄샤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카츄샤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카츄샤 번역4

터키
진취적인 지도자가 있었네 바로 이 때문에 시민들이 저항했지 하나되어 나아갔네 온 바리케이트로 저항하라 저항하라 저항하라 저항하라 하나되어 나아갔네 온 바리케이트로 저항하라 저항하라 저항하라 저항하라 떨어지는 벼락이 불을 질렀네 오전 다섯시에 마을들이 모두 하나의 입으로 소리질렀네 저항하라 저항하라 저항하라 저항하라

군가와 번역

- 특정 시대상과 인간의 감정을 잘 반영하는 문학 장르
 - 번역에 따라 의도와 반대로 해석되거나 사용.

예) «무엇이 그대를 위협할지라도»(폴란드 주재 독일인 행군가)
 사신-적병의 죽음을 의미->호전적 군가
 아군의 죽음을 의미->반전가

 - 동일곡이 국가별 다양한 배경하에 번역되어 사용 됨
 - 언어, 장르, 목적,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재번역 필요.

참고문헌

김혜순 시의 외형적, 형태적 요소의 번역

- "한 잔의 붉은 거울"을 기반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상빈

시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 시를 시이게끔 만들어주는 요소를 시 텍스트에서 발견하는 능력(더불어 시가 기존의 시를 벗어나는 것을 포착하는 능력)
- 시를 번역하고 있다는 자세보다는 번역자인 자신이 낯선 매혹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 번역 대상인 언어보다 번역자 자신의 언어의 지평을 넓혀간다고 생각하는 것, 번역자의 모국어의 잠재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믿는 것
- 가능하다면 번역 대상인 시를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는 것(자신의 번역이 아니면 이 시가 감옥에서 영영 나올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는 것)
- 그리고 무한한 자유 (Albin & Bae, 근간)

시의 외형적 특성

Let us tread the scented grass,
and gather tree-root mushrooms.
Pull the boat in, pull the boat in!
What did we carry
with us in this slip of a boat?
Chigukch'ong, chigukch'ong, öshwa!
When we went, myself alone;
returning, the moon as well. (Rutt, 1971: 189)

Let's tread on fragrant grasses
And pick orchids and angelica.
Stop the boat, stop the boat!
What have I taken aboard
On my boat small as a leaf?
Chigukch'ong chigukch'ong ösawa.
Nothing except smoke when I set sail,
When I row back, the moon is my tenant. (Lee, 1981: 183)

KSCI 2022년 가을 학술대회 발표(한국외대 이상빈)

3

분석 대상

한 잔의 붉은 거울

김혜순

A Drink of Red Mirror

(Jiwon Shin, Lauren Albin, & Sue Hyon Bae)

Un verre de miroir rouge

(Choon-woo Yee & Lucie Angheben)

KSCI 2022년 가을 학술대회 발표(한국외대 이상빈)

4

시의 외형적 특성

우리는 대·소문자와 구두점 사용에 대해 논의했다. '원저자가 대개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할까?' '영어와 비교해볼 때 한국어는 구두점 사용 면에서 자유로운 편이니 이 번역에서는 구두점을 넣어야 할까?' 우리는 'Mixer & Juicer'와 'Eye of a Typhoon(태풍의 눈)'에 나오는 이상(李箱) 시를 읽고 붙여쓰기(his eschewal of spaces between words)를 번역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Albin & Bae, 2019: 90, 필자의 번역임)

KSCI 2022년 가을 학술대회 발표(한국외대 이상빈)

5

오래된 냉장고

나보다 먼저 내 발이 너에게로 가려고 하는 것, 필사적으로 참고 있다. 나보다 먼저 내 입술이 너에게로 가려고 하는 것, 나는 필사적으로 참고 있다. 벌써 이렇게 참은 지 수십 년. 생각해보니 참 묘하다. 내가 이렇게 참고 있었던 건 내가 내 소유의 냉장고를 갖게 된 후부터인 것도 같다. 그러나 저러나 나는 생각해왔다. 내 머릿 속은 얼음으로 꽉 차 있고, 내 차디찬 발을 만진 사람은 모두 기절한다. 내 가슴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입술이 얼어붙는다. 그러니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자. 아무에게도 손 뻗지 말자. 나는 또 이것도 잊지 말자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참고 있으니 내 방 안에서나 나뭇잎 하나 떨어지지 않고, 땅을 박차고 새 한 마리 날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 바람이 불어와도 필사적으로 220볼트의 콘센트 속에 손가락을 끼운 채 버티자. 얼어붙은 풍경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풍경 속의 얼음나라 얼음공주 얼마나 순결한가. 그러나 허벅지 밑으로 피가 조금 흘러내려도 금방 얼어붙을 테니 걱정 말자. 밖은 뜨겁고, 안은 시리다. 시리다 못해 팽팽히 끓는다. 문을 열면 화들짝 놀라 불을 켜는, 얼어붙은 창자들을 매단 겨울 풍경화 한 장. 태풍이 와서 정

OLD REFRIGERATOR

Instead of my feet running to you first, I hold back. Instead of my lips going to yours first, I desperately hold back. Already, I've passed decades holding back. It's strange to think about. It seems I've been holding back like this since I got my own refrigerator. Anyway, I keep thinking. My mind is crowded with ice. Anyone who touches my cold foot loses consciousness. The lips of any person who enters my heart turn to ice. So, I will not take even one step from here. I will not reach out my hand. Again I tell myself not to forget about this. nevertheless, I hold back so desperately that not even a leaf falls in my room and not even a bird kicks off from the ground to fly. I will endure the wind that desperately blows in with my fingers in a 220 volt socket. The frozen landscape, how beautiful. Lady Ice of the frozen kingdom inside that landscape, how pure. I won't worry about the blood trickling down my thigh as it will soon freeze solid. Outside hot, inside cold. It's so cold it boils. When the door opens and the light is started on, a winter landscape displaying frozen intestines. Aloof for decades until

KSCI 2022년 가을 학술대회 발표(한국외대 이상빈)

6

KSCI 2022년 가을 학술대회 발표(한국외대 이상빈)

7

when we sit face to face
we become O
you become the (
and I become the)

O still doesn't come
having left us behind sitting face to face
our two hands
melting like two hands of sculpted ice
yet still O doesn't come (p. 17)

당신의 얼굴은 당신 속의 당신이 당신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 굳어져 있습니다 가끔 그 얼굴이 당신 밖의 내 얼굴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당신의 두 눈동자 속에서 나를 내다보는 당신 속의 당신을 내가 느끼기도 하지만 당신 속의 당신이 당신을 당겨 잡은 그 손을 놓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팽팽히 당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그 긴장을 견디느라 이제 주름이 깊습니다 (p. 16)

Your face solidifies into the same shape that the you inside you has pulled taut that face sometimes leans out into my face outside you, I sense inside your two pupils the you inside you that peers out at me but the you inside you has never let go of that tight hold on your hand you are still pulled taut your face is deeply wrinkled from enduring that tension (p. 9)

그 오래된 사원의 지하엔 천 마리 쥐들이 숨어 있대
인간으로 환생할 날을 기다린대 네 죽음이
시킨 걸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죽음도 살고 싶거든
네가 불러냈으니까 네가 쫓아버려 나는 하염없이 편
지를 쓴다 (pp. 107-108)

They say there are thousands of rats hiding in the basement of that ancient temple They say they're waiting for the day they will be reborn as human Your death probably ordered it Because even death wants to live You called them so you chase them away I write a letter endlessly (p. 71)

미친 새들이 서로 벗을 붙이고
밤하늘 둥그렇게 난다
숲 속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섰는데
토끼 한 마리 달려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그들의 노랫소리 들려온다
살려줘요 살려줘요
끊이지 않는 딸꾹질처럼 내 목을 때는 노래 (p. 58)
Mad birds comb-to-comb
encircle the night sky
Little cabin in the woods a little child by the window stood
Saw a rabbit hopping by knocking at the door
The sound of their singing
Help me help me
A song that cuts my throat like hiccups that won't stop (p. 36)

KSCI 2022년 가을 학술대회 발표(한국외대 이상빈)

11

세 가지 색깔의 꽃을 분쇄 중인 Mixer & Juicer를 들여다본다
꽃이 香氣롭다 꽃이 滿開한다 나는 거기서 幕穴을 판다
꽃이 香氣롭다 꽃이 滿開한다 나는 거기서 幕穴을 판다
李箱의 시는 신형 Mixer & Juicer를 위한 주술이다 (p. 92)

I look inside the mixer and juicer pulverizing flowers of three colors
The flowers are fragrant the flowers blossom I di
g a grave there
The flowers are fragrant the flowers blossom I di
g a grave there
Yi Sang's poetry is a spell for the new-model mixer and juicer (p. 36)

KSCI 2022년 가을 학술대회 발표(한국외대 이상빈)

12

가슴이뭉개진아이 폐의숨구멍마다돌이가득찬아이 열손가락이다찢어진부
챗살처럼너덜거리는아이 두입술이붙어버린아이 눈알이다녹은아이 이빨을
다갈아버린아이 갈비뼈가다빠개진아이 머리털을다뽑혀버린아이 무엇보다
피가하수구로다빨려나간아이 껌처럼혀가풀어진아이 고양이한테노수를다
빨려버린아이 (p. 58)

a child with a crushed chest a child whose lung at every breathing hole is filled with stones a child with ten fingers tattered like a folding fan a child whose two lips are stuck together a child whose eyeballs have melted a child whose teeth have been ground away a child whose ribs have been smashed away a child whose every strand of hair has been plucked a child whose blood among other things has been sucked into the drain a child whose tongue has been stretched like chewing gum a child whose brain has been sucked dry by a cat (p. 36)

LE VIEUX FRIGO

Mes pieds avant moi veulent aller vers toi, je me retiens désespérément. Mes lèvres avant moi veulent aller vers toi, je me retiens désespérément. Déjà des dizaines d'années que je me retiens. Quand j'y pense c'est vraiment curieux. On dirait que je me retiens ainsi depuis le jour où j'ai eu mon propre frigo. Toujours est-il que j'en suis venue à penser ainsi. L'intérieur de ma tête est entièrement rempli de glace, tous ceux qui touchent mes pieds gelés s'évanouissent. Tous ceux qui entrent dans mon cœur se retrouvent avec les lèvres gelées. Alors je ne bougerai pas un doigt. Je n'attraperai la main de personne. J'ai pensé qu'il ne fallait pas l'oublier. Au moins, en me retenant ainsi désespérément, aucune feuille d'arbre ne tombe dans ma chambre et puis, un oiseau ne peut-il pas s'envoler en secouant la terre ? Alors même si le vent souffle, je resterai forte, les doigts désespérément insérés dans la prise de 220 volts. Que les paysages gelés sont

Si nous nous asseyons face à face
Nous devonons O
Vous devenez (
Je deviens)
Une station de métro où les rames sont toutes parties
Ou bien une grotte chaude
Cachée au fond de la mer glaciale
Un œuf chaud s'y vide de ses larmes
Nous devonons O

Votre visage se fige selon l'expression tendue du vous à l'intérieur de vous Parfois ce visage penche vers mon visage hors de vous et parfois je sens le regard du vous à l'intérieur de vous qui me fixe de vos deux yeux, mais le vous à l'intérieur de vous n'a jamais relâché la main qui s'accroche à vous Vous êtes toujours solidement tendu Vos rides sont profondes parce que votre visage a été obligé de supporter cette tension

On dit que mille rats se cachent au sous-sol de l'ancien temple
En attendant le jour de leur réincarnation en humain, c'est ta mort
Qui les y a poussé, parce qu'elle aussi a envie de vivre
C'est toi qui les as invités, alors c'est à toi de les chasser ! J'écris sans fin cette lettre

L'enfant au cœur écrasé l'enfant aux bronches remplies de cailloux l'enfant aux dix doigts déchirés qui s'effrangent comme les baleines d'un événement l'enfant aux deux lèvres collées l'enfant aux globes oculaires complètement fondus l'enfant aux dents toutes arrachées l'enfant aux côtes brisées l'enfant aux cheveux arrachés surtout l'enfant qui a perdu tout son sang dans l'égout l'enfant à la langue fondu comme du chewing-gum l'enfant qui a nourri un chat dans son cerveau

Les oiseaux fous se collent leur crête les uns aux autres
Et s'élèvent en cercle dans le ciel nocturne
Dans une petite maison dans la forêt un enfant regarde par la fenêtre
Un lapin arrive en courant et frappe à la porte
On les entend chanter
Aidez-moi ! Au secours !

19

Lafleurembaume Lafleurfleurt Jecreuseuntrou

Lafleurembaume Lafleurfleurt Jecreuseuntrou

Le poème de Yi Sang est une incantation pour un nouveau modèle de Mixer & Juicer

연구 윤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통역번역학회 학술지에 학술 연구 결과를 게재하고자 할 때 논문 투고와 심사 및 학술지 편집 과정에 있어서 논문의 저자, 학술지의 편집 위원회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한국통역번역학회 학술지인 『통역과 번역』에 적용된다.

제2장 논문 저자 윤리규정

제1조 (표절) 논문 저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참조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 (연구업적)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논문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한다.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제1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거나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제3조 (중복 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이나 또는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나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다시 출판하기 원하는 저자는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와 앞으로 논문이 게재될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에게 중복 게재 여부를 확인한 후 양측의 동의를 구해 이차 출판 형식으로 논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힌다. 논문 및 연구계획 심사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인용해야 한다.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히며,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연구 자료의 진실성) 논문 저자는 연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제시한다.

제6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제안된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 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 과정에서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저자의 성별, 나
이, 소속 기관, 선입견, 친분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
과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
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며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
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
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
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자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
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심사 대상의 논문을 충분히 검
토한 다음 심사해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자세하게 명시하여 심사 보고
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
다. 심사 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 보완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게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제5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통역번역학회 학술지인 『통역과 번역』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사람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한국통역번역학회 발행 학술지 게재논문에서 이중출판, 이중게재, 표절, 조작, 모방 등과 같이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즉시 학회 임원회에 보고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제3조 (학회 임원회의 권한) 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 논문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논문 저자는 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논문 저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임원회는 해당 논문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경고, 해당 논문 게재 취소 (내용 침가),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6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
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10일 발행되는 학회지부터 적용 시행한다.